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 만세!

#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52호 【루계 제25926호】 주체107(2018)년 2월 21일 (수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 베네수엘라 통일된 좌익당에서 상장을 드리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광명성절에 즈음하여 베네수엘라 통일된 좌익당에서 상장을 드리였다.

위대한 장군님께 드리는 상장을 베네수엘라 통일된 좌익당 련방정치비서국 총조정자 펠릭스 헤쑤스 벨라스께스 까스떨료가 14일 이 나라 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에게 전달하였다.

총조정자는 사회주의위업을 옹호고수하고 강화발전시키는데 불멸의 공헌을 하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다함없는 흠모와 칭송의 마음을 담아 상장을 드리게 된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절세위인의 업적에 대한 소개선전활동을 적극 벌려나갈 결의를 피력하였다.

본사기자

## 김정일동지의 업적은 인류력사에 길이 빛날것이다

### 네팔정당, 단체 강조

광명성절에 즈음하여 네팔정당, 단체가 8일과 10일 성명들을 발표하였다.

네팔련합민족사회주의당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조선로동당의 영원한 수반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탄생일에 즈음하여 그이께 최대의 경의를 드린다.

김정일동지는 김일성주석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을 발전풍부화하시여 자주시대의 지도사상으로 빛내이시고 인류자주위업수행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걸출한 령도자이시다.

그이는 지난 세기 말엽 최악의 시련과 난관속에서 조선의 사회주의만을 수호하신것이 아니라 세계사회주의위업을 붕괴와 좌절로부터 재생과 새로운 앙양에로 이끄신 위대한 수호자이시다.

조선을 정치군사강국, 핵보유국으로 전변시키신 그이의 특출한 업적은 인류력사에 길이 빛날것이다.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인민이 반드시 최후승리를 이룩하리라고 확신한다.

네팔기자협회는 김정일령도자께서 펼치신 독창적인 선군정치가 있었기에 조선혁명은 오로지 자랑찬 승리와 영광의 한길만을 걸어올수 있었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시대와 력사앞에 쌓아올리신 업적으로 하여 조선인민과 세계 진보적인류의 마음속에 언제나 영생하실것이다고 강조하였다.

##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을

### 방글라데슈에서 단행본으로 출판, 발행식 진행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2013년 3월전원회의에서 한 결론》을 광명성절에 즈음하여 방글라데슈 다카시 파미씨레스출판사에서 단행본으로 출판하였다.

로작발행식이 2일 출판사에서 진행되였다.

방글라데슈자티야당, 인민련맹, 선군정치연구소조, 광명성절경축 방글라데슈준비위원회, 방글라데슈-조선친선 및 련대성위원회를 비롯한 여러 정당, 단체 인사들과 군중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발행식에서 발언자들은 광명성절에 즈음하여 존경하는 김정은각하의 로작을 출판하게 된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로작은 방글라데슈인민은 물론 세계 진보적인민들에게 조선로동당의 새로운 병진로선의 정당성을 인식시키는데 큰 도움을 줄것이다, 존경하는 김정은각하의 령도밑에 조선인민이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두기 바란다고 말하였다.

## 제22차 김정일화축전 페막

광명성절경축 제22차 김정일화축전이 페막되였다.

우리 군대와 인민, 세계 진보적인류의 다함없는 경모의 정에 떠받들려 성대히 진행된 이번 축전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혁명생애와 업적을 세세년년 길이 빛내이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이 땅우에 사회주의강국을 반드시 일떠세우고야말 천만군민의 확고한 신념과 의지를 힘있게 과시하였다.

김정일화명명 30돐이 되는 뜻깊은 올해의 2월명절을 맞으며 태양의 꽃으로 황홀경을 펼친 축전장은 당, 무력, 정권기관, 근로단체, 성, 중앙기관 일군들, 인민군장병들과 각계층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로 련일 대성황을 이루었다.

해외동포들, 주조 외교 및 국제기구 대표부, 무관단성원들, 주체사상연구조직대표단을 비롯하여 수많은 외국인들도 축전장을 돌아보며 경탄을 금치 못해하였다.

페막식이 20일 김일성화김정일화전시관에서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박광호동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양형섭동지, 내각부총리 전광호동지, 축전조직위원회와 태양의 꽃을 전시한 단위 일군들, 시안의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이 페막식에 참가하였다.

고덕우 총련 니시도꾜본부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광명성절경축 재일본조선인축하단과 해외동포들, 불멸의 꽃 보급후원회 회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김정일장군의 노래》주악으로 페막식은 시작되였다.

축전심사결과가 발표되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태양상을 정중히 모신 김정일화축전상 상장이 축전에 참가한 많은 단위들과 일군들, 재배공, 개별참가자들에게 수여되였다.

김정일화축전상 상장을 총련중앙상임위원회와 해외동포, 외국인들이 받았다.

이번 축전에 불멸의 꽃을 전시한 단위들과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에게 위대한 장군님의 태양상을 정중히 모신 김정일화축전 참가증이 수여되였다.

페막사를 조선김일성화김정일화위원회 위원장 김창도동지가 하였다.

연설자는 제22차 김정일화축전이 위대한 장군님을 주체의 태양으로 영원히 높이 모시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오늘의 만리마대진군에서 불굴의 기상을 남김없이 떨쳐나갈 우리 군대와 인민의 의지를 힘있게 보여준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인민군군인들과 각계층 근로자들, 원예부문 일군들과 과학자들, 세계 여러 나라 화초애호가들과 김일성화김정일화보급후원회 회원들이 앞으로도 꽃재배와 보급에서 교류와 협력을 강화해나갈데 대하여 그는 말하였다.

연설자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를 높이 모시여 어버이장군님의 애국념원, 강국념원은 반드시 실현될것이라는 억척의 신념을 간직하고 불멸의 꽃을 민족의 국보로 더욱 훌륭히 피워나가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페막식은 《불멸의 꽃 축전가》의 주악으로 끝났다.

【조선중앙통신】

# 올해의 혁명적인 총공세에서 위훈창조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리자

## 당의 국토관리정책관철에서 이룩된 자랑찬 성과

### 전국각지의 일군들과 근로자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피끓는 심장속에 받아안은 각지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당의 국토관리정책관철에서 큰걸음을 내짚은 지난해의 날과 달들을 긍지높이 돌이켜보며 뜻깊은 올해의 진군길에 산악같이 떨쳐나섰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전국적으로 도로건설 및 기술개건사업이 성과적으로 진행되고 수천리구간의 강하천들이 번듯하게 정리되였다. 또한 수만세대의 살림집들과 공공건물들이 손색없이 건설 및 개건되고 나무모생산과 심은 나무들에 대한 사름률이 전해보다 훨씬 높아져 산림복구전투승리의 튼튼한 담보가 마련되였다.

이 자랑찬 성과들은 당의 국토관리정책은 과학이며 승리라는 확고한 신념을 안고 내 나라, 내 조국을 천하제일강산으로 꾸려가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불타는 애국충정이 안아온 결실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국토관리사업은 나라의 부강번영을 위한 만년대계의 애국사업이며 인민들에게 훌륭한 생활터전을 마련해주기 위한 숭고한 사업입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국토관리총동원사상과 령도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끝없이 빛내여나가며 국토의 면모를 사회주의강국의 체모에 어울리게 일신시키려는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이다.

지난해 국토의 면모를 일신시키기 위한 전인민적인 련속공격전, 강행돌파전이 힘있게 벌어지고 어디서나 승전의 새 소식이 전해졌다.

혁명의 수도 평양시가 전국의 본보기로 더 잘 꾸려졌다. 대동강구역 청류지구의 면모가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일신되였고 룡치수려한 보통강반에는 수도시민들의 체육문화생활에 적극 기여할 종합적인 체육촌이 보란듯이 일떠섰다. 또한 경치좋은 련못동지역에 어린이들의 교통안전교양에 이바지할수 있는 어린이교통공원이 훌륭히 건설되고 대동강유보도개작 3단계공사를 비롯한 수도의 환경보호사업에 이바지할 큼직큼직한 일들이 전개되여 좋은 결실을 안아왔다.

지방도시들과 농촌마을들의 면모가 일신되였다. 강원도에서는 여러 대상의 발전소건설을 힘있게 내밀면서 국토환경보호성, 농업성을 비롯한 해당 기관들과의 긴밀한 련계밑에 법동-로탄온천지구를 손색없이 꾸리기 위한 투쟁에서 강원도정신창조자들의 본때를 보이였다.

대홍단군에서는 공공건물들에 대한 색철판지붕씌우기와 살림집건설, 읍지구불장식을 비롯한 대상공사들을 집중적으로 조직진행하고 절세위인들의 거룩한 발자취가 어려있는 대상들에 대한 정상보수, 정상관리사업을 짜고들어 진행하였다.

송림시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시를 더 잘 꾸리기 위한 단계별 목표를 세운데 맞게 대동강호안장석보수와 오수정화장대보수공사를 비롯한 국토관리사업을 힘있게 내밀어 시의 전반적면모를 일신시켰다.

강하천들을 규모있게 정리하며 도로를 새로 건설하거나 개건하기 위한 사업이 활발히 벌어졌다.

수령의 유훈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른 동신군에서는 읍지구와 여러 리들을 련결하는 도로공사를 성과적으로 끝냈으며 원흥온천지구꾸리기도 통이 크게 진행하여 당의 국토관리정책의 정당성을 실증하였다. 홍원군에서는 종전같으면 6개월은 걸려야 한다던 어느 한 령의 굴간포장도로구간에 대한 대보수공사를 한달반동안에 결속하였다. 또한 하천바닥파기와 소형발전소건설 등 계획된 공사과제를 훌륭히 수행하였다.

사리원시와 단천시, 금강군, 대동강구역을 비롯한 전국의 수많은 시, 군, 구역들에서 거리와 마을, 일터와 공원, 유원지들을 해당 지방의 특성에 맞게 꾸리기 위한 사업을 통이 크게 작전하고 끝장을 볼 때까지 내밀어 좋은 결실을 거두었다. 그리하여 약동하는 젊음으로 비약하는 조국의 모습은 한결 더 환해지고 인민들에게 보다 훌륭한 생활터전을 마련해줄수 있게 되였다.

산림복구전투에서도 전례없는 혁혁한 성과들이 이룩되였다.

당의 높은 뜻을 받들고 산림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우리 나라의 지형조건과 실정에 맞는 능률높은 산림기계들을 제작도입함으로써 나무모생산의 과학화, 공업화, 집약화를 실현할수 있는 밝은 전망을 열어놓았다.

림농복합경영방법도입이 전국적판도에서 적극 추진되여 산림토지의 립체적, 집약적리용에서 전진의 큰 보폭을 내짚었다. 또한 산림보호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전국적인 산불감시정보봉사체계확립과 산림자원관리의 정보화실현 등 산림경영사업전반을 과학기술과 밀착시키고 일체화하기 위한 사업에서도 혁신적인 성과들이 이룩되였다.

산림복구전투에서 양묘장은 전시에 탄약을 생산보장하는 군수공장이나 같다.

양덕군일군들과 근로자들은 황금산의 새 력사를 펼쳐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길이 빛내여갈 불같은 일념안고 떨쳐나 군모체양묘장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더욱 튼튼히 다져놓았다.

세포군, 정평군, 운산군을 비롯한 많은 군들에서 계획된 나무모생산과 심기과제를 넘쳐 수행하였다. 또한 각지의 수많은 양묘장들이 튼튼한 물질기술적토대우에 올라서고 나무모생산능력이 크게 확장되여 온 나라의 수림화, 원림화실현을 위한 전인민적투쟁을 힘있게 고무해주고있다.

이밖에도 김정숙군, 법동군, 구장군, 해주시, 안악군, 평성시, 모란봉구역, 천리마구역, 라선시 라진지구를 비롯한 각지에서 국토관리총동원사업을 힘있게 내밀었다. 지난해 국토환경보호성을 비롯한 해당 성, 중앙기관들에서 강동군의 중소하천바닥파기 및 제방보수공사를 적극 도와주기 위한 조직사업을 짜고들어 짧은 기간에 결속할수 있게 하였다.

애국충정으로 수놓아진 보람찬 투쟁의 나날을 통하여 각지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남김없이 발휘할 때 당의 원대한 국토건설구상은 반드시 현실로 펼쳐진다는 철의 진리를 더욱 심장깊이 새기였다.

각지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지난해의 국토관리사업에서 이룩한 승리를 발전의 도약대로 삼고 새로운 승리를 쟁취하기 위한 올해의 진군길을 힘차게 달려가고있다.

본사기자 김강철

##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건설장에 더 많은 세멘트를

### 상원세멘트련합기업소에서

전인민적인 총공세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상원세멘트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정초부터 증산돌격전을 힘차게 벌려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건설장에 많은 량의 세멘트를 생산보장하는 자랑찬 로력적위훈을 창조하였다.

상원세멘트련합기업소가 사회주의강국건설위업을 받드는 길에서 언제나 전초병이 될데 대한 당의 크나큰 믿음을 심장깊이 새긴 이곳 로동계급은 전투장마다에서 계속혁신, 계속전진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올해에 군민이 힘을 합쳐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건설을 최단기간내에 완공하고 삼지연군꾸리기와 단천발전소건설, 황해남도물길 2단계 공사를 비롯한 중요대상건설을 다그치며 살림집건설에 계속 힘을 넣어야 합니다.》**

련합기업소당위원회에서는 대중의 앙양된 열의에 맞게 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려 모든 생산자들이 자랑찬 로력적성과를 안고 9월의 대축전장에 떳떳이 들어설수 있도록 힘있게 고무추동하고있다.

련합기업소참모부에서는 새 기준, 새 기록을 끊임없이 창조하여 높이 세운 세멘트생산계획을 무조건 제기일에 완수하기 위한 전투조직을 치밀하게 짜고들고있다. 오늘의 만리마대진군에서 자신들이 지닌 임무의 중요성을 심장으로 자각한 일군들이 한개 단위씩 맡고 내려가 생산현장에서 전투조직과 지휘를 혁명적으로 해나가면서 로동자들과 함께 불꽃튀는 증산투쟁을 벌리고있다.

올해 첫달 세멘트생산과제를 빛나게 넘쳐 수행하는데 적극 기여한 소성직장과 세멘트직장의 로동자들이 불굴의 정신력을 남김없이 폭발시키며 증산투쟁에 드센 박차를 가하고있다. 이들은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건설장에 필요한 세멘트를 제때에 생산보장할 불타는 열의에 넘쳐 매일 높은 생산실적을 기록하고있다.

특히 소성직장의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이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으로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과감히 박차고 설비들의 정상가동을 책임적으로 보장하며 증산의 돌파구를 힘차게 열어제끼고있다. 질좋은 세멘트를 더 많이 생산하는데서 자기들이 맡고있는 임무의 중요성을 깊이 자각한 중앙조종실의 조종사들은 전반적인 공정들의 운영을 보다 과학기술적으로 하기 위해 창조적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나가고있다.

짧은 기간에 1호와 2호생산계렬의 정비보수과제를 성과적으로 완수하고 생산토대를 더욱 튼튼히 다진데 기초하여 보수단위와 보장부문에서도 생산적앙양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고있다.

영웅적투쟁과 집단적혁신의 자랑찬 전통을 더욱 빛내여가고있는 조합원료직장과 원료직장, 보수직장과 주강직장, 공무직장의 로동자들이 결사관철의 투쟁기풍으로 긴급히 제기되는 과제들을 제때에 수행함으로써 세멘트생산에 적극 기여하고있다.

상원석회석광산과 삼청광산, 일출봉광산과 화천탄광의 로동계급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과 과학기술을 원동력으로 만리마속도창조대전에서 끊임없는 집단적혁신을 일으켜나가고있다.

전후 천리마대고조로 난국을 뚫고 사회주의건설에서 일대 앙양을 일으킨것처럼 전인민적인 총공세를 벌려 최후발악하는 적대세력들의 도전을 단호히 짓부셔버릴 이곳 로동계급의 혁명적열의가 비상히 앙양된 속에 1월에 이어 2월에도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건설장에 많은 량의 세멘트를 생산보장하는 자랑찬 혁신이 창조되였다.

지금 상원세멘트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이룩한 성과에 자만함이 없이 내부예비를 최대한 탐구동원하고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운동, 경험교환운동을 활발히 벌리면서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건설장과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필요한 세멘트를 더 많이 생산보장하기 위해 계속혁신, 계속전진해나가고있다.

본사기자

## 과학기술을 틀어쥐고 비약의 돌파구를

###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부문, 단위들에서 과학기술에 의거하지 않고서는 그 어떤 일에서도 성과를 거둘수 없다는 관점과 립장을 가지고 과학기술발전에 선차적인 힘을 넣으며 모든 문제를 과학기술에 기초하여 풀어나가야 합니다.》**

굴지의 강철생산기지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에서 생산공정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고있다.

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은 과학기술발전에 강철증산의 지름길이 있다는 투철한 관점을 가지고 새 기술개발과 도입, 새로운 공정확립을 위한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과학기술을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련합기업소의 력량과 수단을 총집중하여 제기되는 문제들을 혁명적으로 풀어나가는 과정에 최근 새로운 기술공정들을 꾸리기 위한 준비사업에서 혁신적인 성과들이 이룩되고있다.

련합기업소의 일군들은 생산목표와 함께 기술발전목표를 높이 세우고 기술자, 로동자들을 기술혁신운동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고있다. 매 기술자들에게 기술개발 및 도입과제를 주고 기술혁신운동이 대중자신의 사업으로 되도록 하고있다. 이와 함께 단위별사회주의경쟁요강에 기술발전과제수행을 중요항목으로 박아넣고 총화와 평가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함으로써 모든 종업원들이 이 사업에 주인다운 자각을 안고 한사람같이 떨쳐나서게 하고있다.

일군들은 전민과학기술인재화의 요구에 맞게 과학기술보급실을 손색없이 꾸리고 그 운영을 정상화하고있으며 누구나 새 기술을 배우고 활용하도록 조건보장에도 큰 힘을 넣고있다. 특히 새 기술발표회와 심의, 전시회 등을 조직하여 과학기술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부단히 높여주는 한편 발명가, 기술혁신선구자들을 우대하고 평가해주어 그들이 자기 사업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분발해나서게 하고있다.

련합기업소의 일군들은 금속공업부문의 과학자들과 현장기술자, 기능공들과의 창조적협조를 강화하는 사업에도 깊은 관심을 돌리고있다.

이 과정에 생산공정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강화하는데 이바지하는 가치있는 기술혁신안들이 창안도입되고있다.

지난 시기 무연탄가스화에 의한 고온공기연소기술을 압연공정과 6천t프레스직장에 받아들여 중유가 없이도 생산을 정상화할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한 련합기업소에서는 올해에도 그 기술을 확대도입하기 위한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실천적경험을 통하여 그 어떤 불리한 조건에서도 생산을 정상화하자면 연료, 원료를 우리의것으로 보장해야 한다는것을 명심한 일군들과 기술자들은 인발강판직장 가열로들에 고온공기연소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준비사업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보산제철소의 일군들과 기술자들은 자력자강의 위력이자 과학기술의 위력이라는것을 깊이 자각하고 1호회전로에 폐열을 리용한 열풍취입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이미 지난해에 무연탄소립화에 의한 주체철생산공정을 확립한 제철소의 일군들과 기술자들은 주체철생산을 늘이기 위한 중요한 방도를 원료, 연료의 절약에서 찾고 폐열을 효과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기술연구를 활발히 벌리고있다.

최근 련합기업소에서는 새 련속조괴기와 남비정련로를 설치하기 위한 기술준비를 다그치면서 동시에 미량합금화기술을 받아들여 새로운 재질의 강재를 생산하기 위한 시험준비를 적극 다그치고있다.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이 일심동체가 되여 기술발전과제수행을 위해 머리를 쓰고 서로 돕고 이끌면서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과정에 많은 기술적문제들이 해결되고 증산의 동음을 높이 울릴수 있는 확고한 담보가 마련되고있다.

과학기술을 생명선으로 틀어쥐고나가는 련합기업소일군들의 혁신적인 일본새에 의해 그 어떤 조건에서도 생산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수 있는 돌파구가 열리고있다.

현지보도반

뜻깊은 올해를 자랑찬 로력적성과로 빛내일 일념안고 대상설비생산을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룡성기계련합기업소에서— 본사기자 김진명 찍음

# 우리 조국을 교육의 나라, 인재강국으로

학령전어린이들과 소학교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담당한 교원들을 양성하는 평양교원대학,

이곳을 찾은 우리는 이 하나의 교원양성기지를 통해서도 우리 조국을 교육의 나라, 인재강국으로 빛내이시기 위하여 심혈과 로고를 바치신 절세위인들의 후대사랑, 교육중시의 력사를 가슴뜨겁게 새겨안을수 있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교육사업은 우리 혁명의 대를 이어주고 나라의 발전을 떠밀어주는 중요한 사업이므로 다른 사업에 확고히 앞세우며 아무리 어려워도 후대교육사업은 한시도 중단하거나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는것이 우리 당의 교육중시사상이고 정책입니다.》**

후대교육사업을 당과 국가의 제일중대사로 내세우시고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지난 1월 16일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평양교원대학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그날의 발자취를 따라 우리가 처음으로 들린 곳은 대학의 연혁소개실이였다. 연혁소개실에 들어선 우리의 귀전에는 대학을 찾으시여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것만 같았다.

**《연혁소개실에 전시된 자료들을 보면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교원대학 교육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얼마나 크나큰 로고와 심혈을 바치시였는가 하는것을 잘 알수 있습니다. 지난 수십년간 이 대학이 자랑스러운 발전행로를 걸어올수 있은것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뜨거운 보살피심이 있었기때문입니다. 대학일군들과 교직원들은 대학에 깃들어있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후대사랑, 미래사랑의 숭고한 뜻과 자기들이 맡고있는 임무의 중요성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교수교양사업에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나감으로써 수령님과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여나가야 합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떠나 우리 나라를 교육의 나라, 인재강국으로 건설하는데 적극 이바지해온 평양교원대학의 자랑찬 력사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음을 깊이 새겨주는 뜻깊은 말씀이였다.

교육사업은 혁명의 전도, 민족의 흥망과 관련되는 중대한 사업이며 사람들을 가장 힘있는 존재로 키우는 어렵고 복잡한 인간개조사업이다.

나라와 민족의 만년대계를 위한 교육사업은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교육사상에 의하여 지도됨으로써만 그 옳바른 발전이 확고히 담보될수 있다.

인류교육사는 교육에 뜻을 가졌던 이름있는 사람들을 수많이 기록하고 있지만 우리 수령님과 같이 주체적인 교육사상과 교육실천으로 후대교육사업에서 세기에 빛날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신 위대한 교육사상가, 교육실천가는 고금동서에 있어본적이 없다.

혁명활동의 첫 시기부터 교육사업을 혁명의 승패와 민족의 흥망을 좌우하는 근본문제의 하나로 보시고 여기에 선차적인 관심을 돌려오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주체적인 교육로선을 내놓으시고 그것을 빛나게 구현하시여 혁명인재육성사업에서 고귀한 경험과 업적을 이룩하시였으며 우리 당의 깊고도 억센 혁명적교육전통을 마련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해방후 건당, 건국, 건군의 위업을 실현해나가시는 그처럼 바쁘신 가운데서도 인민적이며 혁명적인 교육제도를 세워주시였으며 혁명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에서 교육이 나아갈 방향과 방도를 밝혀주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였다.

아이들을 나라의 역군으로 키우자면 그들을 가르칠 교원들이 많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를 위한 온정어린 조치들을 취해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손길아래 해방된 이듬해 9월 1일 인민학교(당시)학생들의 교육교양을 담당할 교육자들을 양성하는 첫 교원양성기지가 세워지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인민학교학생들을 가르치는것이 중학교학생들을 가르치는것보다 더 힘들며 또 인민학교선생보다는 유치원교양원이나 탁아소보육원들의 책임이 더 무겁다고 말할수 있다고, 그것은 어린아이일수록 다루기가 더 힘들며 어린아이들을 다루는 사람일수록 로숙해야 하고 지식이 풍부하고 경험이 많아야 하기때문이라고 하시면서 보통교육사업의 강화발전에 크나큰 심혈을 기울이시였다. 우리 수령님께서 학령전어린이들을 비롯한 나어린 새 세대들에 대한 교육사업을 얼마나 중시하시였는가 하는것은 지금으로부터 46년전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4차 전원회의에서 교원대학을 늘이고 능력있는 교원들을 더 많이 키워낼데 대하여 간곡하게 교시하신 사실을 놓고서도 잘 알수 있다.

우리 나라에서 교원대학, 사범대학을 비롯한 수많은 교원양성기지들이 태여나 온 나라에 정연한 사범교육망을 형성할수 있게 된것도, 사회주의교육테제의 요구대로 후대들을 지덕체를 갖춘 혁명의 계승자로 튼튼히 키워나갈수 있는 교원들을 해마다 수많이 양성해낼수 있게 된것도 조국의 먼 앞날을 내다보시며 후대교육의 새 경륜을 펼치신 위대한 수령님의 빛나는 예지와 현명한 령도를 떠나 생각할수 없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뜻을 높이 받드시여 우리 혁명과 시대의 요구에 맞게 교육내용과 방법을 끊임없이 개선하고 교원양성사업을 강화하는것을 사회주의교육발전의 중요한 요구로 내세우시고 그 실현을 위한 사업을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였다. 평양교원대학에만도 여러차례에 걸쳐 수많은 교육설비들과 악기들을 보내주시였으며 이 대학을 전국의 교원대학들의 본보기가 되도록 해주시였다.

후대들을 키우는 사업을 한걸음 늦추면 조국의 전진이 열걸음 떠진다고 하시면서 교원들의 수고를 깊이 헤아려주시고 적극 내세워주시며 교원양성기지들을 강화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신 우리 장군님의 손길아래 후대교육사업에서는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고 배움의 글소리가 더 높이 울려퍼지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교육강국건설사상과 업적을 길이 빛내여나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후대교육사업을 당과 국가의 제일중대사로 내세우시고 주체교육발전의 새로운 전성기를 펼쳐주시였다. 새 세기 우리 교육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전반적 12년제의무교육이 실시되고 인재육성사업에서 혁명적전환이 일어났다.

그 나날 경애하는 원수님의 온정속에 평양교원대학은 교육의 과학화, 정보화, 현대화가 높은 수준에서 실현된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만 한 본보기대학으로 전변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교육부문에서 몇년어간에 대혁명을 일으켜야 한다고, 교육혁명도 남이 한것을 답습하며 뒤따라가는 방법으로 하지 말고 단번에 교육이 발전된 나라들의 교육수준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고, 그렇게 하는것이 만리마속도이라고 하시면서 교육부문에서 교원진영을 잘 꾸리고 그들의 교육자적자질을 끊임없이 높이는데 힘을 넣으며 교육환경을 현대교육발전추세의 요구에 맞게 꾸리도록 하시였다.

교육부문을 현대화하는 사업과 교육의 질을 높이는 문제는 국가중대사이며 국가의 장래와 관련되는 중차대하고 전략적인 문제이라고, 교육과 관련한 문제에서는 사소한것에 이르기까지 소홀히 하는 점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국가적으로 교육부문을 최우선시하는 기풍, 기강을 세워야 한다고, 이것은 당의 요구, 혁명의 요구이라고 하시며 교원양성기지들을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꾸리도록 손잡아 이끌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웅지와 온정에 떠받들려 희한하게 전변된 평양교원대학,

현지지도의 그날 대학의 개건현대화정형과 교수교양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면서 우리의 미래를 담당한 교육자들에게 저 하늘의 별이라도 따준것 같고 금방석을 마련해준것 같은 심정이라고, 조국의 창창한 미래가 눈앞에 선히 그려진다고 하시면서 우리 원수님 얼마나 기뻐하시였던가.

교원의 실력이자 학생의 실력입니다. 내가 계속 말하는것이지만 뿌리가 든든해야 충실한 열매가 달릴수 있습니다. 교원들은 충실한 열매가 달려게 하는 든든한 뿌리가 되여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교원들을 어느 부모나 자기 자식을 마음놓고 맡길수 있는 능력있는 교원들로 준비시켜야 합니다. …

경애하는 원수님의 그날의 가르치심은 온 나라 교육자들의 가슴에 애국충정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숭고한 후대사랑, 미래사랑을 안으시고 새 세기 교육혁명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여 우리 나라는 온 세상이 부러워하는 교육의 나라, 인재강국으로 빛을 뿌릴것이다.

본사기자 림정호

## 교원들에 대한 뜨거운 사랑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과학과 기술의 시대인 오늘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사업은 나라의 흥망과 민족의 장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우리 교육자들의 가슴마다에는 교원들을 애국자라고 불러주시고 교원들을 위해서는 아까울것이 없다고 하시며 크나큰 믿음과 사랑을 부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의 정이 소중히 간직되여있다.

주체102(2013)년 8월 어느날이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건설장을 찾으시였다.

아아히 솟아오른 초고층살림집을 바라보시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살림집을 건설하면서 이곳에서 살게 될 사람들이 자그마한 불편도 없도록 편의시설을 잘 갖추어줄데 대하여 각근히 이르시였다.

당시 내부미장중에 있던 2호동의 3층의 어느 한 방에 들리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신발장은 어디에 놓고 장식장은 어디에 놓는가도 알아보시고 아치식으로 처리한 공동살림방의 개구를 보시고는 공동살림방으로 들어가는 개구처리를 잘하였다고 하시면서 아주 보기 좋다고, 마음에 든다고 하시였다.

공동살림방에는 텔레비죤도 놓고 앉차대와 쏘파도 놓으면 되겠다고 일일이 이르시고 살림방의 층고도 알아보시며 아늑한 감이 든다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베란다의 벽미장정형도 친히 살펴보시였다.

그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런 가슴뜨거운 말씀을 하시였다.

후대들을 키우고 나라의 인재들을 육성하는데 한생을 바쳐가는 교원들은 애국자들입니다. 그들을 위해서는 아까울것이 없습니다. …

일군들의 가슴은 한없이 후더워올랐다. 조국의 미래, 혁명의 미래를 위해 한생을 묵묵히 바쳐가는 교원들을 애국자들이라고 값높이 불러주시며 내세워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

교원, 연구사들의 생활을 잘 돌봐주는것은 조국의 미래와 관련되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그래야 그들이 아무런 불편없이 후대교육사업과 과학연구사업에 전심할수 있으며 사업에서 더 큰 성과를 거둘수 있다고 하시며 교육자들에게 살림집을 당의 선물로 안겨주도록 하신 우리 원수님의 온정속에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은 마침내 완공단계에 이르게 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또다시 이곳을 찾으시여 내부를 몸소 돌아보시면서 집안에 거울이 없는것을 보시고는 거울을 걸어주며 그밑에는 머리빗같은것을 놓을수 있는 기단도 만들어줄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그리고 액정텔레비죤이며 그릇세트를 보내주려고 한다고 하시며 교육자살림집에 들게 될 세대들이 부러운것이 없도록 필요한 모든것을 다 갖추어주어야 한다고 다심히 이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그후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준공식에도 친히 참석하시고 44층에까지 오르시여 또다시 친어버이사랑을 부어주시였다.

한없이 자애롭고 친근한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격정에 넘쳐 우러르는 교원, 연구사들의 가슴마다에는 보답의 맹세, 충정의 맹세가 세차게 불타올랐다.

본사기자 김인선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 함경남도를 현지지도하신 70돐 기념보고회 진행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함경남도를 현지지도하신 70돐 기념보고회가 20일 함흥대극장에서 진행되였다.

도안의 당, 정권기관, 근로단체, 관계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보고회에 참가하였다.

보고회에서는 조선로동당 함경남도위원회 위원장 김성일동지가 기념보고를 하였다. 보고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주체37(1948)년 2월 도안의 많은 단위들에 거룩한 령도의 자욱을 남기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승리에로 이끄시여 이룩하신 불멸의 혁명업적은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수행을 확고히 담보하는 만년토대로 된다.》**

보고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북조선로동당 함경남도 제2차대표회에서 하신 보고 《당중앙위원회 사업에 대하여》와 흥남지구인민공장에서 하신 연설 《조국의 경제토대를 튼튼히 닦기 위하여》를 비롯한 력사적로작들에서 도안의 당, 경제사업과 인민생활향상에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당시 흥남에 있는 화학공장과 흥남해운사업소, 흥남비료공장을 찾으시여 화학공업을 발전시키고 흥남항을 전망성있게 꾸리며 비료를 제때에 수송하고 기술자들과의 사업을 잘할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어버이수령님께서 흥남지구인민공장(당시)산하 각 공장 지배인들을 만나시고 원료보장과 기술자양성, 후방공급사업에 이르기까지 깊은 관심을 돌려주시였으며 현지지도의 그 바쁘신 속에서도 함흥시 학생예술소조공연을 몸소 보아주시고 성남인민학교(당시)도 찾아주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보고자는 어버이수령님의 력사적인 현지지도는 도안의 당사업과 경제, 교육사업을 발전시키며 인민생활향상에서 새로운 전환의 계기로 되였다고 강조하면서 지난 70년간 이룩된 자랑찬 성과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당조직들의 전투적기능과 역할이 비상히 강화되였으며 흥남비료련합기업소, 2.8비날론련합기업소를 비롯한 중요공장, 기업소들에서 현대화가 적극 추진되고 생산이 끊임없이 장성되였다고 강조하였다.

함흥화학공업종합대학이 화학공업부문의 종합적인 기술인재육성기지로 훌륭히 변모되고 함흥시 성천강구역 성남소학교에서 재능있는 과학자, 예술인, 체육인들이 배출된것을 비롯하여 도의 여러 부문 사업에서 커다란 성과들이 이룩된데 대하여 그는 말하였다.

보고자는 도안의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어버이수령님의 유훈을 심장깊이 새기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그는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의 세번째 해인 올해에 전력, 금속, 화학, 기계공업과 광업, 경공업, 농업, 수산업을 비롯한 모든 부문에서 혁명적인 총공세를 벌려 련대적혁신을 일으켜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함흥메기공장과 함흥청년1호발전소건설을 비롯한 중요대상건설을 다그치고 삼지연군꾸리기,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건설, 단천발전소건설 등을 물심량면으로 힘있게 지원하여야 할것이라고 그는 언급하였다.

보고자는 도안의 전체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일심단결하여 공화국창건 일흔돐이 되는 뜻깊은 올해를 전례없는 로력적성과로 빛내일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 교육중시력사의 갈피에서

## 새 조선의 첫 중학교

건국의 마치소리가 온 나라를 진감하던 주체34(1945)년 10월 어느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어느 한 마을을 찾으시여 인민들과 자리를 같이하시고 후대교육과 관련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그때 누군가가 이곳에도 중학교를 하나 세웠으면 한다고 말씀올리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기뻐하시며 학교를 어디에다 세우겠는가고 물으시였다.

그가 학교로 쓸만 한 건물이 마을근처에 몇개 있다고 말씀드리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가보자고 하시며 자리에서 일어서시였다.

시간이 흘러 한 일군은 위대한 수령님께 돌아가실 시간이 지났다고 말씀드렸다. 하지만 우리 수령님께서는 현지에 나가시여 잡초를 헤치시며 건물을 돌아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건물뒤에 있는 넓은 공지를 바라보시고 거기에다 널직한 운동장을 닦고 학생들이 축구도 하고 뛰뛰기도 할수 있게 하라고 이르시였다. 그러시고는 앞으로 나라의 살림이 좀 펴이면 산기슭에 큰 학교를 하나 짓도록 하자고 하시였다.

그 학교가 바로 우리 수령님께서 후대들을 선진과학지식과 건전한 도덕품성, 튼튼한 체력을 갖춘 역군으로 키워 나라를 부흥시키시려는 숭고한 뜻을 담아 친히 이름을 지어주신 새 조선의 첫 중학교인 삼흥중학교였다.

## 거듭 베푸신 은정

주체99(2010)년 5월 어느날 김정숙사범대학은 환희에 휩싸이였다. 량강도를 현지지도하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 몸소 대학을 찾아주셨던것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대학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대학이 지난 기간 나라의 교육발전에 크게 이바지한데 대하여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그러시고 대학의 교육사업에서 걸린 문제가 없겠는가에 대하여서도 마음쓰시였다.

그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한 교원의 강의를 주의깊게 들으시다가 교탁에 놓여있는 콤퓨터앞으로 다가가시여 글이 보이는가고 물으시였다.

교원들은 어떻게 말씀올릴지 몰라 한동안 바제이다가 글이 보인다고 말씀올리였다.

그러자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빙그레 웃으시며 참 눈들이 밝구만라고 하시고 지금 교원들이 멀리 떨어져있는 콤퓨터화면을 보면서 토론하고 있는데 원래는 책상마다 콤퓨터가 있어야 한다고 하시였다.

그러신 후 대학에 전자도서관을 꾸려주시겠다고 온정깊은 말씀을 하시였다.

그뿐이 아니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대학이 시내와 떨어져 교통이 불리하다는것까지 헤아려보시고 대학에 고급뻐스도 보내주도록 하시였다.

## 토양과 거름

주체102(2013)년 11월 어느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평양건축종합대학을 찾으시였다.

그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올해가 대학창립 60돐이 되는 해인데 대학의 60년력사는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손길아래 걸어온 자랑스러운 력사이라고, 대학에서는 지난 60년간 대학사업에 바쳐오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업적을 교직원들과 학생들속에 깊이 심어주기 위한 교양사업을 강화하여 대학에 깃들어있는 수령님들의 령도업적을 길이 빛내여나가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그러시고나서 수령님께서 세워주신 대학을 장군님께서는 종합대학으로 승격시켜주시였고 자신께서는 대학명칭을 평양건축종합대학으로 고치도록 하였다고 의미깊게 말씀하시였다.

계속하시여 혁명과 건설의 매 시기마다 이 대학 사업을 중시하여오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높은 뜻을 받들어 오늘은 자신께서 평양건축종합대학의 명예총장이 되여 대학사업을 적극 밀어주자고 한다고 하시며 대학의 교육조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평양건축종합대학에서 사회주의문명국건설의 전초병들을 많이 키워내도록 하자면 대학의 교육조건을 잘 보장해주는것이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가르치시였다.

인재양성을 나무에 비유한다면 교육은 토양이고 교육조건은 거름과 같다고 말할수 있다.

교육은 토양, 교육조건은 거름!

참으로 뜻깊은 말씀이였다.

흥분에 싸인 일군들을 바라보시면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뜨겁게 말씀을 이으시였다.

나는 건축인재양성에서 밑거름이 되려고 합니다.

본사기자 최유일

# 과학자의 재부—실력

사람은 자기가 아는것만큼 발아들이고 표현한다. 아무리 각오가 높다고 하여도 실력을 소유하지 못하면 당이 맡겨준 혁명초소에서 응당한 책임과 역할을 다할수 없다는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때문에 정치실무적자질이 높다는것은 곧 혁명가로서의 인격을 갖추었다는것을 의미한다.

무한대한 힘을 낳게 하는 높은 실력은 누구에게나 사활적이지만 특히 과학자들에게 있어서 실력보다 귀중한 재부는 없다.

한것은 오늘날 과학기술이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주도해나가는 기관차이며 과학자들은 그 기관차의 기관사이기때문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높은 실력은 과학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귀중한 재부입니다.》**

최첨단과학기술의 집합체인 인공지구위성 《광명성-3》호 2호기를 성과적으로 발사하는데 공헌한 과학자, 기술자, 로동자, 일군들을 위한 뜻깊은 연회에서였다.

피타는 탐구와 노력으로 운반로케트와 위성의 믿음성과 정밀도를 개선하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을 짧은 기간에 결속하고 위성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한 우리의 미더운 과학자, 기술자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동지들이야말로 수령님과 장군님의 참된 전사, 제자들이고 온 나라가 떠받들어야 할 영웅중의 영웅들이며 동지들과 같은 참된 애국자들이 있기에 우리 조국이 강대하고 우리 당의 혁명위업이 승승장구하고있는것이라고 최상최대의 평가와 믿음을 안겨주시였다.

력사의 그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현시대는 과학기술의 시대, 지식경제시대이며 과학기술의 발전수준에 의하여 국력이 결정되고 나라와 민족의 지위와 전도가 좌우되게 된다고 하시면서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이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 눈은 세계를 볼데 대한 구호를 높이 들고 두뇌전, 실력전을 힘있게 벌려 세계를 디디고 올라서며 조국의 영예와 민족의 슬기를 만방에 떨쳐나가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최첨단돌파의 열풍을 더 세차게 일으킴으로써 우리 조국을 세계가 우러러보는 강국으로 빛내이는것, 사회주의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과학기술의 룡마를 타고 더 높이 더 빨리 비약하는것, 바로 이것이 과학자, 기술자들에 대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하늘같은 믿음이고 기대이다.

지난 1월 국가과학원을 현지지도하시면서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우리가 건설하는 사회주의강국은 세계선진수준의 과학기술에 의하여 추동되고 담보되는 지식경제강국이라고 하시면서 우리의 과학자들이 과학전선을 사회주의수호의 전초선으로 밀어준 당의 의도를 명심하고 높은 리상과 꿈을 안고 눈부신 과학연구성과로 부강조국건설에 적극 이바지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과학자들의 실력은 곧 당에 대한 충정으로 발휘된다. 지식경제시대의 선도자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여야 할 사명을 지닌 과학자들에게 있어서 지식과 실력은 강국건설의 물질적부를 끊임없이 마련할수 있게 하는 힘있는 수단이고 추동력이다. 풍부한 식견과 열렬한 탐구정신의 뒤받침으로만이 수행할수 있는 사명이다.

시야가 넓고 사색이 깊어야 세계적인 발명을 할수 있다. 과학자들의 실력제고에서는 끝이 있을수 없다. 부단한 탐구와 창조가 없는 곳에서는 침체와 답보, 후퇴가 뒤따르기때문이다. 세계와 어깨를 겨루고 세계를 단연코 디디고 올라서야 할 과학자들에게 있어서 미지수란 있을수 없다. 미지의 세계를 꿰뚫어볼수 있게 하는 실력의 밝은 홰불은 비상한 정열이 화합되여야만 활활 타번질수 있다. 끝까지 파고드는 불타는 정열을 떠나 성공의 기쁨과 보람을 생각할수 없다.

과학기술의 모든 분야에서 세계를 앞서나가기 위한 사상전, 두뇌전인 첨단돌파전을 힘있게 벌릴데 대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말씀을 뼈에 새긴 과학자만이 시대와 혁명앞에 지닌 자기의 본분을 다할수 있다.

본사기자 량순

# 신심과 용기를 북돋아주시여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조선혁명은 하늘이 주는 신비한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일편단심 당을 따르고 옹위하는 영웅적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을 비롯한 우리 인민의 위대한 힘에 떠받들려 전진합니다.》**

언제인가 위대한 장군님께서 락원기계련합기업소를 찾으시였을 때의 일이다. 당시 기업소앞에는 이미 생산한 굴착기들에서 나타난 결함들을 퇴치하고 질을 높여야 할 과업이 나서고있었다.

기업소에서 생산한 굴착기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고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에게 정말 자신있는가고 물으시였다.

일군들은 이제는 자신이 있다고 힘있게 말씀올리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몸소 굴착기의 경사발판에까지 올라서시여 걸리고있는 문제도 토론해주시였으며 여러 직장들을 돌아보시고나서 이번에 와보니 신심이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그전에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만든 뜨락또르도 처음에는 앞으로 간것이 아니라 뒤로 갔다고, 락원기계련합기업소에서 만든 유압식굴착기가 결함은 좀 있지만 거기에 비해보면 큰 문제가 아니라고 신심과 용기를 안겨주시였다.

빈터우에서도 그 누구에게 손을 내밀지 않고 자체의 힘과 기술로 당과 수령이 준 과업을 기어이 해내고야만 자력갱생의 혁명정신, 결사관철의 정신으로 투쟁해나갈 때 못해낼 일이 무엇이겠는가!…

자기들을 탓할 대신 오히려 힘과 용기를 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을 우러르며 일군들은 이런 생각으로 가슴을 불태웠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후에도 기업소를 찾으시여 유압식굴착기생산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들을 다 풀어주시며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믿음과 사랑은 비약을 낳는 원천이였다.

락원의 로동계급은 자체의 힘과 기술로 드디어 많은 유압식굴착기를 만들어내는 성과를 거두게 되였다.

기업소를 또다시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마당에 가득찬 굴착기들을 보시며 기업소에서 생산한 유압식굴착기들을 줄지어 세워놓은것이 볼만 하다고 하시며 못내 기뻐하시였다.

우리 로동계급에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믿음과 사랑은 또 한분의 천출위인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에 의하여 이 땅에 그대로 이어지고있다. 찾으시는 일터마다에서 크나큰 믿음과 사랑을 안겨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거룩하신 모습에서 천만군민은 위대한 장군님의 자애로운 영상을 그려보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믿음과 사랑을 심장속에 간직하고 살며 일해나가는 우리 로동계급에 의해 경제강국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또 얼마나 많은 성과들이 이룩될것인가.

본사기자 전광남

# 박봉주동지

##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 현지료해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내각총리인 박봉주동지가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를 현지에서 료해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올해신년사에서 제시하신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금속공업의 주체화를 기어이 완성하기 위한 혁명적인 총공세를 벌려나가고있다.

박봉주동지는 기업소의 여러곳을 돌아보면서 강철로 우리 당을 충직하게 받들어온 전세대들의 자랑스러운 전통을 이어 일터마다에서 증산의 동음을 높이 울리고있는 로동자, 기술자들의 투쟁성과를 고무해주었다.

현지에서 진행된 협의회에서는 인민경제의 철강재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키기 위한 대책적문제들이 토의되였다.

이에 앞서 박봉주동지는 보통강유기질복합비료공장과 평양자동화기구공장을 돌아보면서 복합비료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여 알곡증수의 확고한 담보를 마련할데 대하여서와 석탄공업부문에 보내줄 기계, 설비생산을 다그치기 위한 대책들을 강구하였다.

【조선중앙통신】

# 위대성교양사업을 참신하게

부포바다가양식사업소 초급당위원회에서 위대성교양사업을 참신하고 실효성있게 진행하고있다. 초급당위원회에서는 당세포와 근로단체조직들에서 위대성교양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도록 하는 한편 일군들과 선동원들의 역할을 높여주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고있다.

또한 일군들과 선동원들이 작업의 쉴참을 비롯한 여러 계기들에 위대성교양을 격식과 틀이 없이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고있다. 지금 사업소의 당원들과 종업원들은 우리 당의 인민사랑의 뜻을 더 활짝 꽃피울 일념을 안고 한사람같이 떨쳐나 바다가양식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로농통신원 리형재

# 새로운 동력자원개발에 큰 힘을 넣어 전력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이자

## 번개쳐 내닫자, 완공의 령마루에로

### 강동수력건설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계급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승리를 쟁취하기 위한 혁명적인 총공세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강동수력건설련합기업소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전투장마다에서 대중적영웅주의와 집단적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각지에 건설되는 여러 대상의 발전소건설 동시에 추진!

높이 세운 1월 건설계획을 빛나게 초과완수한 기세로 2월에도 계속 혁신!

설비조립사업소와 타입직장, 굴착직장과 운수직장을 비롯한 련합기업소의 모든 전투장마다에서 조선로동계급의 영웅적기상과 본때를 힘있게 과시하며 자랑찬 승전포성들이 다발적으로, 련발적으로 울려퍼지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나라의 풍부한 동력자원에 의거하는 전력생산기지들을 대대적으로 일떠세워야 합니다.》**

련합기업소당위원회에서는 정치사상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려 모든 건설자들이 천리마의 대진군으로 세기적인 변혁을 이룩한 전세대들의 투쟁정신을 이어 누구나 시대의 앞장에서 힘차게 내달리는 만리마선구자가 되도록 힘있게 고무추동하고있다.

련합기업소참모부에서는 련판단위들과의 련계를 강화하고 로력조직과 설비리용을 최대한 합리적으로 하면서 공사작전과 지휘를 전투적으로 해나가고있다. 일군들은 현장을 타고앉아 두뇌전, 실력전의 된바람을 일으키며 어렵고 힘든 모퉁이마다에 남먼저 어깨를 들이밀고 로동자, 기술자들과 함께 불꽃튀는 건설전투를 벌리고있다.

련합기업소의 로동계급은 불굴의 정신력과 자력갱생의 위력으로 발전소건설에서 진격의 돌파구를 힘차게 열어제끼고있다.

설비조립사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자강땅에 일떠세우는 발전소건설을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각종 수문을 비롯한 20종에 근 1 000t에 달하는 대상설비들을 자체의 힘과 기술로 제작조립한 성과에 기초하여 발전기실내부공사를 질적으로 해제끼고있다.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투쟁정신과 일본새는 세포지구 발전소건설장에서 더욱 높이 발휘되고있다. 이곳에 달려나온 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방대한 량의 가배수로공사를 완공한 기세로 언제기초굴착과 성토작업에서 대중적영웅주의와 집단적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필승의 신심에 넘쳐 완공의 령마루를 향해 질풍같이 내달리던 이들앞에 난관이 가로놓였다. 언제성토작업장에서 불리한 조건으로 륜전기재들의 가동이 멈춰섰던것이다.

필요한 설비자재가 보충되기전에는 공사를 진척시킬수 없다는 보수주의, 패배주의를 단호히 쳐갈기며 이곳 로동계급의 무쇠주먹들이 억세게 솟구치였다.

돌격로는 직선, 탑보란 있을수 없다. 한몸이 그대로 욕탄이 되여서라도 공사기일을 무조건 보장해야 한다!

비록 걸모습은 소박해도 이곳 로동계급의 심장마다에는 발전소완공의 날을 하루빨리 앞당겨 어머니당에 충정의 보고를 삼가 올리려는 강렬한 지향이 활화산마냥 불타올랐다.

언제성토전투장은 말그대로 총포성없는 치렬한 격전장으로 화하였다. 건설자들은 저저마다 맞들이와 질통을 지고 가파로운 경사면을 하루에도 수십차례 오르내리며 성토작업을 드세차게 벌리였다. 서로서로 손잡아 이끌고 힘껏 떠밀어주며 사정없이 지쳐내리는 아슬아슬한 고비들을 넘긴적은 그 얼마였던가.

정녕 붉은기를 대오앞에 펄펄 휘날리며 혁명가요의 우렁찬 합창속에 언제를 한치한치 쌓아나가는 이들의 모습은 한목숨바쳐 진격의 돌파구를 열어제끼던 1950년대 영웅전사들의 군상그대로였다.

타입직장과 선별직장, 혼합직장과 수송직장, 시추직장과 중기계직장, 공무동력직장과 가설직장의 전투원들은 불타는 충정과 애국적헌신성으로 막아서는 애로와 난관을 과감히 박차며 건설장마다에서 가슴뜨거운 화폭들을 련이어 펼치였다.

굴착직장의 착암공들은 대소한의 강추위속에서도 완강한 공격정신으로 련속천공, 련속발파를 들이대면서 진격의 돌파구를 앞장에서 힘차게 열어제끼였다. 직장장 한세영동무와 운수직장의 기술자, 기능공들은 내부에비를 최대한 탐구동원하고 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짧은 기간에 자체의 힘으로 종전보다 륜전기재들의 가동대수를 대폭 늘이였다. 직장, 작업반들사이에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운동, 경험교환운동이 활발히 벌어지는 속에 사회주의증산경쟁도표들에 비약의 만리마들이 앞을 다투어 날아올랐다.

련합기업소의 일군들은 해당 단위들과의 긴밀한 련계밑에 합리적인 공법들을 적극 받아들여 많은 량의 자재를 절약하면서도 공사속도와 질을 다같이 높이기 위한 전투조직과 지휘를 더욱 짜고들었다. 대중의 앙양된 열의에 맞게 장정주, 김창국동무들은 전투장마다에서 화선선전, 화선선동의 북소리를 힘차게 울리며 대중을 새로운 위훈창조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였다.

하여 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건설자들은 높이 세운 1월 건설계획을 빛나게 초과완수하고 그 기세로 뜻깊은 2월에도 계속 혁신, 계속전진해나가고있다.

뿐만아니라 자체의 힘으로 골재와 세멘트, 강재생산기지들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더욱 튼튼히 다져 발전소건설을 앞당겨 끝낼수 있는 밝은 전망을 열어놓았다.

전력생산기지들을 더 많이 일떠세워 당의 사회주의강국건설구상을 맨 앞장에서 억세게 받들어나가자!

불보다 뜨거운 애국충정을 지니고 심심산골의 발전소건설장마다에 값높은 위훈의 자욱을 새겨가는 강동수력건설련합기업소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오늘도 자력자강의 불길높이 완공의 날을 하루빨리 앞당기기 위해 진군의 보폭을 더 크게, 더 힘차게 내짚고있다.

본사기자 정순성

## 석탄가스화발전체계를 확립하여

### 령남배수리공장 일군들과 종업원들

령남배수리공장에서 자체의 힘으로 능력이 큰 석탄가스화발전체계를 확립하여 덕을 보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자기 지방의 조건과 가능성을 충분히 타산한데 기초하여 전력문제를 풀기 위한 전략을 세우고 크고작은 여러가지 류형의 발전소들을 대대적으로 일떠세워 전력수요를 자체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공장에서는 10여년전부터 풍력 및 태양빛발전체계를 확립하고 전력을 생산하여 경영활동에 리용하고있었다.

나라의 긴장한 전력사정은 공장의 생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였다. 전력이 부족할 때마다 수십대의 발동발전기들을 가동시키군 하였지만 여기에 드는 연유의 량은 너무도 엄청났다.

모자라는 전력을 이런 방법으로 보충하는것은 실리에도 맞지 않았다.

몇해전 공장발전전략을 토의하는 회의에서 리대성지배인은 능력이 큰 석탄가스화발전체계를 확립할것을 제기하였다.

사실 주변에는 이 체계를 도입한 단위들이 있었지만 능력이 작았다. 큰 능력의 석탄가스화발전체계확립이 성공할수 있다는 담보는 없었다.

신심이 없어하는 일군들에게 지배인은 이렇게 말하였다.

석탄에 의한 발전체계를 확립하는것만이 경영활동에서 실리를 철저히 보장하고 나라에도 보탬을 줄수 있는 길이다.

당조직에서도 그의 제기를 적극 지지해나섰다.

지배인은 공장의 기술자, 3대혁명소조원들과 함께 석탄가스화발전체계를 도입한 여러 단위들을 돌아보았다. 그 과정에 설비들을 자체의 힘으로 제작할 결심을 가지게 되였다.

김책공업종합대학 연구사들이 현장에 달려나와 가스발생공정설계와 발동발전기개조설계를 완성하였다. 공장의 기술자, 3대혁명소조원들도 다른 설비들의 설계를 맡아 책임적으로 결속하였다.

배무이와 배수리를 진행하면서 설비들을 제작하는 전투과정에 막아서는 애로와 난관이 한두가지가 아니였다.

부피가 큰 가스발생로본체제작에서 애를 먹고있을 때 김호철기사장은 지게차를 리용하는 작업방법을 착상하였다. 청정탑제작에 필요한 자재가 부족되였을 때에도 공장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내부에비를 적극 탐구동원하였다.

이들은 200여차의 현장기술협의회와 수십차의 시험을 거쳐 발전체계운영에 필요한 지표값들을 확정하였으며 경험있는 단위에 찾아가 효률적인 로운전조작방법도 배웠다.

석탄가스화발전체계확립과정에는 실패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공장책임일군들은 기술자들과 3대혁명소조원들이 손맥을 놓을세라 새 기술자료와 성의있는 후방물자들도 안겨주면서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었다.

오랜 시험끝에 공장에서는 발전기의 정상가동을 보장하는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일군들과 기술자, 3대혁명소조원들은 이에 만족하지 않았다.

이들은 모든 공정들에 각종 수감장치들을 설치하고 조종프로그람을 자체로 작성하여 콤퓨터에 의한 발전체계의 자동조종을 실현하고 전력생산량을 더 늘일수 있게 하였다.

이렇게 능력이 큰 석탄가스화발전체계가 확립됨으로써 공장의 경영활동과 생산에 필요한 전력을 원만히 보장할수 있게 되였다.

공장일군들과 종업원들의 투쟁은 과학기술을 틀어쥐고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해나갈 때 그 어떤 난관도 돌파나갈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최영조

## 자연에네르기를 적극 리용

### 평성시에서

평성시에서 자연에네르기를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자체로 긴장한 전력문제를 풀기 위한 된바람이 세차게 일고있다.

최근에만도 시안의 많은 단위들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풍력과 태양에네르기에 의한 발전능력조성사업에 적극 떨쳐나 성과를 거두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자연에네르기를 중시하고 널리 개발리용하여 앞으로 전국적인 전력생산에서 여러가지 자연에네르기에 의한 전력생산의 비중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시당위원회의 지도밑에 평성시의 일군들은 최단기간내에 자연에네르기를 리용하여 많은 전력을 생산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그 실현에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힘있게 불러일으키고있다.

일군들은 시안의 모든 단위들에서 풍력과 태양에네르기를 효과있게 리용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도록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고있다.

일군들은 평성자동화기구공장에서 생산하는 각이한 출력의 성능높은 풍력발전기들이 여러 단위들에 설치되여 실지 온을 내는것을 보여주어 자연에네르기리용사업에 광범한 대중이 떨쳐나서도록 하고있다.

얼마전에 새로 일떠선 미꾸라지종어장에서는 여러대의 풍력발전기와 태양빛전지판을 리용하여 양수동력과 조명보장 등 관리운영에 필요한 전력을 자급자족하고있다.

양묘장을 비롯한 시안의 10여개 단위들에서도 풍력발전기를 설치하여 덕을 보고있다.

이를 통하여 각 단위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자연에네르기리용의 우월성을 보다 잘 알고 자체로 전기를 생산하기 위한 투쟁에 적극 떨쳐나서고있다.

시안의 많은 단위들에서 풍력발전기들을 새로 도입하기 위한 사업이 적극 추진되고있다.

시당위원회의 일군들은 대중의 앙양된 열의에 맞게 자연에네르기에 의한 발전능력조성사업이 성과적으로 진행되도록 평성자동화기구공장에 자주 나가 걸린 문제들을 제때에 풀어주면서 생산자대중을 힘있게 고무추동하고있다.

자연에네르기를 리용하기 위한 투쟁은 주민들속에서도 활발히 벌어지고있다.

얼마전 역전동 주민지구에 풍력발전기와 태양빛전지판에 의한 2중전원공급체계가 시범적으로 도입되여 호평을 받고있다. 이 과정에 시안의 주민들속에서 자연에네르기를 리용하기 위한 사업이 더욱 활기있게 진행되고있다.

지금 평성시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나라의 긴장한 전기문제를 푸는데 적극 이바지할 일념안고 자연에네르기에 의한 발전능력조성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있다.

명춘길

## 중소형발전소운영을 잘하여 덕을 본다

### 연탄군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도들에서 자기 지방의 특성에 맞는 전력생산기지들을 일떠세우며 이미 건설된 중소형수력발전소들에서 전력생산을 정상화하여 지방공업부문의 전력을 자체로 보장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연탄군에서 중소형발전소운영을 잘하여 전력생산을 늘이고있다.

군책임일군들은 발전소들에 자주 나가 전력생산자들이 군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의 생명선을 지켜섰다는 자각을 안고 증산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도록 정치사업을 짜고들고있다.

이와 함께 발전소들의 운영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제때에 풀어주고있다.

군의 전력생산자들은 높은 책임성을 지니고 설비관리, 기술관리에 힘을 넣으면서 증산의 동음을 높이 울려가고있다. 이들은 발전설비들에 대한 보수를 짜고들어 발전기들의 만가동을 보장하는것과 함께 수력구조물보수를 잘하여 한방울의 물도 허실없이 전력생산에 리용하고있다.

뿐만아니라 말은 구간의 선로관리를 실속있게 진행하여 생산된 전력이 중단없이 공급되도록 하고있다.

군안의 전력생산자들은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활발히 벌려 발전설비들의 기술개조도 적극 다그쳐나가고있다.

지난 시기 이들은 자체의 힘으로 전압단계를 높이는 사업을 힘있게 내밀어 도중손실을 훨씬 줄임으로써 중소형발전소 하나를 새로 건설한것과 같은 전력에비를 얻어냈다.

또한 부하에 따라 물량을 자동적으로 조절할수 있는 장치를 제작설치하고 이미 있던 려자배전반들의 성능을 보다 개선하여 군안의 공장들과 단위들, 주민지구에 질좋은 전기를 보내주고있다.

군안의 일군들과 주민들도 한사람같이 떨쳐나 발전소를 로력적으로, 물질적으로 적극 지원하고있다. 설비보수가 진행될 때마다 많은 후방물자를 가지고 현장에 달려나와 보수전투를 힘있게 벌리고있는 전력생산자들을 고무해주고있다.

지금 군안의 전력생산자들은 겨울철조건에 맞는 합리적인 운영방법을 받아들여 많은 전력을 생산함으로써 지방공업공장들에서 생산활성화의 동음이 높이 울리고 집집의 창가마다에 밝은 불빛이 넘쳐흐르게 하는데 한몫 단단히 하고있다.

본사기자

더 많은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있다. —평양화력발전련합기업소에서— 본사기자 김종훈 찍음

## 군중관확립은 멸사복무의 첫걸음

### 사리원시 미곡리당위원회 일군들의 사업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인민들의 요구와 리익을 기준으로 사업을 설계하고 전개하며 인민들속에 깊이 들어가 고락을 같이하면서 인민들의 마음속고충과 생활상애로를 풀어주어야 합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나의 정든 농장이라고 뜨겁게 불러주신 영광의 땅 미곡협동농장.

최근년간 농장의 전반적인 사업에서 새로운 비약이 일어나고있다. 농업생산은 물론 꾸리기 등 어느 면에서나 눈에 띄는 성과들이 이룩되고있다.

성과의 요인들을 분석해볼 때 어머니당조직의 뜨거운 사랑과 정이 농장원대중의 정신력을 발동시키는데서 중요한 작용을 하였다는것을 알수 있다.

주목되는것은 군중관확립을 위한 리당위원회의 노력이 배가된것이다. 즉 인민대중제일주의를 당사업실천에 드팀없이 구현하기 위한 사업이 전례없이 심화된것이다.

### 무한한 존중과 높은 신망

현시기 군중관확립에 대한 당의 요구는 높다.

위대한 수령님들을 받들어 모시듯이!

이 숭고한 뜻을 심장에 새기고 군중앞에서 자신들을 무한히 낮추며 겸손하고 소박한 성품을 소유하기 위하여 애쓰는것이 이곳 리당일군들의 기풍이다.

몇해전 리일복리당위원장이 새로 임명되여 사업을 시작하면서부터 자신들을 더욱 채찍질하게 된 리당일군들이다.

군중에 대한 존중을 체질화, 습벽화하자. 군중을 존중하는만큼 신망이 높아진다.

리안의 전반실태를 료해한데 기초하여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빛내이기 위한 사업을 보다 높은 단계에서 추진할 결심을 가다듬으면서 리당위원장은 이런 철칙을 내세웠고 또 요구성을 높이였다.

우선 열, 백마디 말보다 감화력이 큰 이신작칙으로 이끌었다.

그의 사무실은 가까이의 일군들도 놀랄 정도로 문턱이 낮았다. 찾아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일반농장원이건 늙은이건 지어 어린이라 할지라도 언제나 밝은 인상으로 맞아주었다. 어디 가나 평범한 농장원들과 일손도 같이하고 우스개소리도 하면서 허물없는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그속에서 민심을 포착하고 농장원들을 위한 새 일감을 잡았으며 그들의 고충과 아픔을 풀어주는데서 기쁨을 느끼였다.

혹 일군들이 농장원들의 리익에 저촉되게 일하는데 대해서는 사소한것도 무심히 스치지 않았다.

어느해인가 년간결산분배가 진행되는 날이였다. 온 농장이 명절처럼 흥성거렸다.

한 농산작업반의 초급일군들이 집집마다 실어다주게 된 현물분배를 한 세대에만은 미처 날라다주지 못하였다. 운반할 량이 많았을뿐아니라 일단 타놓은 현물분배가 어디 가랴 하는 배포유한 심정때문이였다.

그러나 리당위원회에서는 그날로 현물분배를 받지 못하게 될 농장원세대의 립장에 먼저 서보았다. 그리고 초급일군들을 신칙하였다. 그들이 지체없이 농장원세대에 날라다주도록 긴급대책을 취하였다.

언제인가 사리원시의 한 곳에서 온 농장이 떨쳐나 자급비료생산전투를 벌릴 때의 일도 교훈적인것으로 일군들의 추억에 깊이 새겨져있다.

그날 한 일군이 사무실에서 리용하던 구두를 신고 현장에 나왔었다. 그러다나니 일에 몸을 잠그지 못하였다. 그 일군이 사람들에게 곱게 보일리 만무한것은 불보듯 명백하였다.

리당위원장은 저녁에 해당 일군들이 모인 기회에 그 사실을 상기시키고나서 군중에게 준 영향이 좋지 않다고, 그런 태도로 사업하다가는 물우에 뜬 기름방울이 될수 있다고 경종을 울리였다.

옳은 군중관을 확립할데 대하여 말로만 외우는것이 아니라 실지 군중을 존엄있게 대하며 군중의 리익과 편의를 최우선, 절대시하는 일군들의 미더운 모습은 대중의 가슴속에 충정의 불길을 말없이 세차게 지펴올리였다.

### 진정속에 굳건히 이어지는 혈맥

그 어떤 교양이나 호소도 진정과 결합되지 못할 때는 응당한 실효를 거둘수 없다.

진정은 긴 설명이 없이도 사람을 감화시키고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사람과의 사업, 마음과의 사업의 위력한 수단으로 된다.

리당위원회에서는 군중을 스승으로 존경하고 받드는 일군들의 그무렵 리안의 여러 세대 살림집들을 시급히 보수해야 할 일감이 나섰다.

전투목표가 방대하고 이미 벌려놓은 일들이 많은 조건에서 좀 미룰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의향을 내비치는 일군들도 있었다.

이런 때 리당위원회는 옳바른 원칙의 자를 내대였다.

다른 문제와 다르다. 평범한 농장원들의 생활에서 절실한 살림집보수문제인 까닭에 양보할수 없다. 힘들더라도 짐을 더 지고 내달려 불이 번쩍 나게 해제끼자고 일군들을 깨우치였다.

리당위원장이 앞채를 메고나섰다. 리당집행위원인 송윤희관리위원장도 건설에 필요한 자재와 자금을 솔선 해결하면서 진격로를 열어나갔다.

그리하여 방대한 살림집들의 보수과제가 짧은 기간에 수행되고 새 집이나 다름없는 살림집에 보금자리를 편 농장원세대들에서 기쁨의 웃음꽃이 활짝 피여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인민사랑의 발자취가 가는 곳마다 아로새겨져있는 미곡땅에는 단 한명의 락오자도 있어서는 안된다는 자각을 안고 리당위원회에서 뜨겁게 품어안아 새 출발의 자욱을 떼여준 사람들이 오늘 기술혁신의 능수, 사회주의문화의 창조자로 이름떨치고있다. 상처입은 자식일수록 더 따뜻이 품어안아주는 어머니의 심정으로 리당위원회는 부모없이 자란 청년들에게 결혼상도 차려주고 전세대들의 뒤를 이어 애국농민의 바통을 굳건히 이어가게 하고있다.

청년작업반 당세포위원장의 추억은 농장원들을 위한 리당일군들의 헌신의 열도가 얼마나 뜨거운가를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언제인가 리당위원장이 청년작업반의 부모없는 합숙생처녀들을 위해 색갈고운 비옷들을 마련해가지고왔을 때의 일이다.

빨간 비옷과 파란 비옷이였는데 파란 비옷을 입은 합숙생처녀가 빨간 비옷을 입은 처녀들에게 부러운 눈길을 보내며 말했다.

《저 리당위원장동지, 저도 빨간 비옷을…》

딱한 일이였다.

잠시 생각을 쫓던 리당위원장은 인차 빨간 비옷으로 바꿔주마 약속하는것이였다.

그 자리에서 옹색함을 금치 못하였던 당세포위원장은 리당위원장을 따로 만났을 때 량해를 구하였다.

하도 허물없이 대해주니 이제는 투정까지 한다고, 교양사업을 제대로 못해서 안되였다고…

그러자 리당위원장은 오히려 자기 생각은 정반대이라고 하면서 말하였다.

《그쯤한 투정정도가 아니라 군중의 호령까지 받을줄 알아야 합니다.》

후에 그가 빨간 색갈의 비옷을 다시 마련하여가지고왔을 때 합숙생처녀는 (아버지!—) 하고 속으로 부르며 흐느끼였다.

* *

아직은 추위가 가셔지지 않았다. 하지만 미곡리사람들의 가슴속에는 열정의 봄이 약동하고있다. 벌이 꺼지게 낟알을 가꾸리라고,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의 뜻을 활짝 꽃피우리라고.

따뜻한 정과 사랑으로 사람들을 보살피며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로 힘있게 떠밀어주는 이곳 리당위원회의 사업은 옳은 군중관확립이야말로 멸사복무의 첫걸음임을 실증해주고있다.

본사기자 리정수

## 각종 발브생산에서 혁신

### 문천발브공장에서

문천발브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이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절실히 필요한 각종 발브생산에서 위훈을 창조하며 기세좋게 전진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주체조선의 건국과 발전행로에 빛나는 영웅적투쟁과 집단적혁신의 전통을 이어 혁명의 최후승리를 이룩할 때까지 계속혁신, 계속전진해나가야 합니다.》**

공장당조직에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신년사를 높뛰는 심장마다에 받아안고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새로운 승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떨쳐나선 일군들과 로동자들을 증산투쟁에로 불러일으키는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어 진행하고있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공장의 일군들은 현장들에 내려가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절실히 필요한 각종 규격의 발브생산에서 련일 혁신이 창조되도록 생산조직과 지휘를 패기있게 해나가고있다.

특히 공장에서는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절실히 필요한 각종 규격의 발브생산계획을 앞당겨 끝낼 목표를 세우고 생산에서 걸린 문제들을 제때에 풀어주기 위한 사업을 잘해가고있다.

일군들은 대중의 창조적지혜와 힘을 합쳐 원가를 적게 들이면서도 발브생산을 늘일수 있는 기술혁신안을 생산에 적극 받아들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생산의 첫 공정을 맡은 주물직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이 혁신의 앞장에서 힘차게 내달리고있다. 직장에서는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짜고들어 만가동의 동음을 높이 울리면서 발브생산에 필요한 주물제품을 제때에 보장하고있다.

이들은 표준조작법의 요구를 철저히 지키면서 용해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여러가지 기술혁신안을 받아들여 지난해 같은 때보다 더 많은 쇠물을 생산하는 성과를 거두고있다.

청년가공직장과 정밀직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서로 돕고 이끄는 집단주의정신을 높이 발휘하면서 맡겨진 가공작업을 질적으로 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있다.

직장의 일군들은 기술학습을 강화하고 오랜 기능공들이 신입공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여주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어 발브가공과 조립속도와 질을 높이도록 하고있다.

고압발브직장에서 여러건의 가치있는 기술혁신안을 생산에 받아들여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절실히 필요한 고압발브생산에서 혁신을 창조하고있다.

공구직장과 공무직장을 비롯한 보장단위들에서도 생산을 함께 책임진 주인다운 립장에서 지구장비와 설비가동에 필요한 부속품들을 제때에 보장하여 공장앞에 맡겨진 발브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는데 적극 기여하고있다.

특파기자 신천일

## 일욕심많은 작업반장

### 대천군 읍협동농장 제6작업반 반장 길춘국동무

다수확운동을 힘있게 벌릴데 대한 당의 뜻을 관철하기 위하여 헌신하고있는 초급일군들속에는 태천군 읍협동농장 제6작업반 반장 길춘국동무도 있다.

이 작업반이 지난해 알곡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게 되기까지에는 남달리 일욕심많고 작업조직에서 빈틈이 없는 그의 남모르는 노력이 깃들어있다.

길춘국동무는 공화국창건 70돐이 되는 뜻깊은 올해에도 대풍을 안아올 목표밑에 남먼저 새벽문을 열고나가 질좋은 거름을 생산하기 위하여 이신작칙의 모범으로 농장원들을 이끌어나가고있다.

또한 농장원들에게 과학농법들을 적극 해설해주는 한편 당면한 거름생산조직사업을 잘 짜고들어 련일 실적을 올리게 하고있다.

그는 흙보산비료와 《신양2》호복합균에 의한 발효퇴비를 비롯한 유기질비료생산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요구를 철저히 지키기 위해 앞장에서 뛰고있다.

올해에 모든 논밭을 옥토로 만들어 정보당 수확고를 획기적으로 높일 불같은 결의로 가슴을 끓이며 떨쳐나선 작업반원들은 유기질비료생산의 모든 공정에서 높은 책임성을 발휘해나가고있다.

그리하여 작업반에서는 질좋은 거름을 포전들에 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당의 농업정책을 철저히 관철하는 여기에 알곡생산성과의 담보가 있다는것을 실천을 통하여 깊이 새긴 길춘국동무와 작업반원들은 신심에 넘쳐 농사차비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있다.

본사기자

# 제약공업의 현대화를 다그쳐 사회주의보건제도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자

## 의약품생산에서 전환을 안아올 불같은 열의

###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지지도를 받은 평양제약공장을 찾아서

얼마전 우리는 당의 숭고한 의도를 실천으로 받들어갈 불같은 의지가 창조의 거세찬 숨결이 되여 맥박치는 평양제약공장을 돌아보면서 비약적발전을 이룩하게 될 우리 제약공업의 래일을 확신성있게 그려볼수 있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제약공장과 의료기구공장들을 현대화하고 효능높은 의약품과 첨단의료설비, 기구, 의료용소모품들을 원만히 생산보장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구내에 들어서니 공장을 찾아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자애로운 영상을 형상한 모자이크벽화가 눈앞에 환하게 안겨왔다.

숭엄한 마음을 안고 영상작품을 우러러 삼가 인사를 드린 우리에게 주정호지배인은 이런 뜻깊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공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1982년 5월 평양제약공장을 돌아보시는 어버이수령님의 영상사진문헌을 깊은 감회속에 바라보시면서 위대한 장군님의 세심한 지도속에 현대적인 의약품포장재생산공정이 일떠섰다는 보고를 받으신 수령님께서 이날 나라의 증대사를 토의하는 당중앙위원회 정치국회의도 뒤로 미루시고 공장에 찾아오시였다고, 우리 수령님과 장군님은 인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한평생 마음쓰신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시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였습니다.》

인민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강렬하시였으면, 인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을 얼마나 중시하시였으면 이처럼 뜨거운 자욱을 새기시였으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 인민들에게 무상치료제의 혜택이 차례지게 하자면 약이 많아야 하고 좋은 의료기구들이 있어야 한다고 하시며 제약공업발전에 커다란 관심을 돌리신 어버이수령님의 현명한 령도가 있어 사회주의보건제도의 우월성이 높이 발양될수 있었다는 생각으로 가슴적시며 우리는 제품견본실로 걸음을 옮기였다.

많은 의약품들과 포장재들이 주런이 진렬되여있는 모습이 우리의 눈길을 끌었다.

공장에서는 60여종의 알약들과 10여종의 물약, 여러종의 인단과 싸락약 및 가루약을 생산하고있으며 각종 수지약병 등을 만들어 의약품포장수요를 보장하고있었다.

《우리 포장재직장은 의약품포장에 이르기까지 세심히 관심을 돌려주신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의 손길아래 태여난 직장입니다.》

인민들이 리용하는 약병 하나, 약품상표 한장에도 위대한 수령님들의 사랑의 손길이 어려있다는 지배인의 이야기를 뜨거운 격정속에 들으며 우리는 공장구내길에 나섰다.

구내길량옆으로 즐비하게 늘어선 감나무들이 공장의 풍치를 더해주었다.

지배인의 말에 의하면 수백그루나 되는 감나무들에서 해마다 수확하는 많은 감을 공장탁아소 어린이들과 종업원들에게 공급한다는것이였다.

이어 우리가 이른 곳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제약공업부문에서 처음으로 의약품생산 및 품질관리기준의 요구에 맞는 통합생산체계를 자체의 힘과 기술로 잘 구축해놓았다고 만족을 표시하신 통합조종실이였다.

여기서 우리는 국가과학원 정보과학기술연구소 연구사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우리는 평양제약공장을 GMP화가 실현된 공장, 에네르기절약형, 로력절약형공장으로 전변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통합생산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것처럼 공장통합생산체계는 생산관리체계, 기업자원계획화체계 그리고 자동조종체계로 구성되였습니다. …》

생산현장들에 대한 정화공정과 작업장, 설비들에 대한 위생관리, 원자재와 제품들의 보관관리, 생산출하된 제품들에 대한 관리 등이 GMP의 요구에 맞게 진행되도록 하는 공장의 통합생산체계는 볼수록 흐뭇했다.

신약직장과 고려약직장은 또 어떠했던가.

공장에서는 국가과학원의 과학자, 기술자들과 힘을 합쳐 110여종에 근 200대의 설비들을 제작 및 개조하여 생산정상화의 동음을 높이 울리고있었다.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더 많은 의약품을 생산하여 사회주의보건제도의 혜택이 그대로 가당게 할 일념을 안고 힘찬 투쟁을 벌려가는 종업원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당과 뜻도 숨결도 발걸음도 같이하려는 이들의 불같은 충정을 페부로 절감하였다.

우리는 과학기술보급실에도 들려보았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지지도를 받은 이후 열성독자들의 수가 날을 따라 늘어난다는 보급원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여운을 남기였다.

공장을 돌아보며 우리는 확신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지지도 과업을 결사관철하고야말 이들의 불같은 열의에 의하여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적극 이바지하는 의약품들이 더 많이 쏟아져 나오게 될것이라는것을.

글 본사기자 조향미
사진 김광림

## 비약적발전의 담보

◇ 제약공업부문이 분발해나섰다.

전국의 모든 제약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평양제약공장과 흥남제약공장현대화의 높은 목표를 제시해주시고 그를 위한 은정깊은 조치를 취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믿음에 충정으로 보답할 불타는 열의에 넘쳐있다.

문룡수 보건성 국장은 이렇게 말하였다.

《제약공업부문의 비약적발전을 이룩하여 인민들이 사회주의보건제도, 조선로동당의 보건정책이 좋다는것을 말이나 글로써가 아니라 실지 페부로 느끼게 하시려는것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높으신 뜻입니다.》

그렇다. 당에서는 지금 제약공업이 용을 쓰며 일어날것을 바라고있으며 이 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열의도 높다.

◇ 제약공업발전의 담보는 의약품생산에 필요한 원료와 자재보장에 있다.

의약품생산자들의 열의가 아무리 높아도 원료와 자재를 제때에 보장해주지 못하면 성과에로 이어질수 없다. 원료와 자재보장이야말로 의약품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이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인민들이 무상치료제의 혜택을 충분히 누리도록 하기 위하여서는 약품생산에 큰 힘을 넣어야 합니다.》**

우리의 제약공업이 얼마나 높이 그리고 얼마나 빨리 비약하는가 하는것은 일군들의 사상관점에 크게 달려있다.

의약품생산은 사회주의영상을 지키고 우리 나라 인민적보건제도의 참다운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의료일군이 아무리 의술이 높아도 의약품이 없으면 환자를 제대로 치료할수 없는것처럼 원료와 자재가 따라서지 못하면 제약공장들에서 생산적앙양을 일으킬수 없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보건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는 사업에 계속 큰 힘을 넣고있는것은 결코 나라가 풍족해서가 아니라고, 인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당과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돌봐주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보건제도의 우월성을 힘있게 과시하고 사회주의를 지키는 중요한 사업이기때문이라고 강조하시였다.

의약품생산에 필요한 원료와 자재를 제대로 보장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은 사회주의를 지키는가 못 지키는가 하는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일군들이 사회주의수호전의 전초선을 지켜섰다는 영예로운 사명감을 간직하고 의약품생산에 필요한 원료와 자재보장대책을 철저히 세워나갈 때 우리의 제약공업은 더 빨리 비약할수 있으며 사회주의만세소리는 더 높이 울려퍼지게 된다.

◇ 의약품생산에 필요한 원료와 자재를 우선적으로 보장해주는 체계를 철저히 세워야 한다.

모든 일군들은 어버이수령님께서 가렬처절한 전쟁의 불길속에서 전반적무상치료제를 실시하도록 하신 숭고한 뜻을 심장깊이 새겨안아야 한다.

엄혹했던 고난의 행군시기에도 인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인민생활을 안정향상시키기 위하여 온갖 조치를 다 취한 우리 당의 령도업적을 뼈에 새겨야 한다. 의약품생산에 필요한 원료와 자재보장사업을 곧 사회주의신념에 관한 문제로 보고 여기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한다.

제약공장들에 원료, 자재를 원만히 보장해주는것을 비롯하여 사회주의보건제도의 우월성을 더 높이 발양시키기 위한 국가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화학공업부문과 기계공업부문, 농업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각 부문에서는 의약품생산에 필요한 원료와 자재, 설비를 제때에 보장하는 강한 규률을 세워야 한다. 해당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생산된 물자가운데서 보건부문에 필요한 물자들을 먼저 책임적으로 보장하도록 하여야 한다. 과학자들과 함심하여 원료문제를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성, 중앙기관을 비롯한 해당 단위들에서 보건사업을 자기 일처럼 여기고 의약품생산을 위한 사업에 적극 떨쳐나서야 한다.

## 효능높은 약품개발에 박차를

### 의학연구원 약학연구소에서

의학연구원 약학연구소에 첨단돌파의 기상이 나래치고있다.

세계적인 제약공업발전추세를 잘 알고 선진기술을 적극 받아들여 질좋고 효능이 높은 의약품들을 더 많이 연구개발할데 대한 당의 뜻을 과학연구사업의 확고한 지침으로 삼고 더욱 분발해나선 일군들과 연구사들의 열의는 지금 대단히 높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치료방법의 과학화와 효능높은 의약품에 대한 연구, 의료설비현대화를 비롯하여 첨단을 돌파하기 위한 의학과학기술연구사업에 힘을 집중하여야 합니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지난 시기 연구소에서는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적극 이바지하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의약품들을 더 많이 연구개발하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을 힘있게 벌려왔다.

과학연구사업의 주인이라는 자각을 안고 앞채를 메고 달리는 일군들의 이신작칙과 첨단을 향하여 끝없이 줄달음치려는 연구사들의 드높은 열정에 의해 지난해 연구소에서는 인민보건실천에 적극 이바지하는 과학연구성과들이 이룩되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관철전에 결사의 각오를 안고 떨쳐나선 연구사들의 힘찬 투쟁에 의하여 락솔을 나노화하기 위한 연구사업이 완성되였다.

연구사들은 거듭되는 실패와 막아서는 난관앞에 주저앉지 않고 집체적지혜와 힘을 합쳐 연구사업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풀어나감으로써 마침내 효능높은 주사약을 개발하여 내놓았다.

이와 함께 우리 나라에 흔한 원료를 리용한 새로운 교갑재료를 개발하여 지난 시기 수입에 의존하던 굳은 교갑을 주체화하기 위한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삼향우황청심교갑약, 생물활성인삼수액 등 20여종의 고려약을 연구개발하여 고려약의 엑스화, 과학화실현에도 적극 이바지하였다.

우리의 제약공업을 하루빨리 추켜세워 사회주의보건제도의 우월성이 더욱 남김없이 발양되도록 하기 위한 성스러운 과업이 자기들의 어깨에 지워져있다는 숭고한 사명감을 안고 연구소안의 전체 일군들과 연구사들은 올해에도 연구과제들을 앞당겨 완성하기 위한 사업에 박차를 가해나가고 있다.

현재 연구소에서는 우리의 원료를 리용한 상비약품, 대중약품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사업, 새로운 혈전용해약물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 효능높은 나노약물들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사업들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현시기 의학과학분야에서 절실하게 제기되는 중요한 과학기술적문제들을 빠른 기간에 해결하며 특히 첨단을 돌파하기 위한데로 모든 사색과 열정이 지향되고있다.

본사기자

## 원료의 주체화를 위한 사업 힘있게 추진

### 흥남제약공장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첫달 인민경제계획을 넘쳐 수행한 흥남제약공장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원료의 주체화를 더욱 원만히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흥남제약공장은 나라의 제약공업발전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있습니다.》**

사회주의보건사업을 더욱 발전시키는데서 자기들이 맡고있는 임무의 중요성을 깊이 자각한 이들은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하여 의약품생산계획을 지표별로 180%이상 넘쳐 수행한 기세드높이 원료의 주체화를 실현하기 위한 과학기술결사전을 힘있게 벌려나가고있다.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이곳 일군들은 지난 시기 수입에 의존하던 여러가지 원료들을 우리의 원료로 생산보장하기 위한 대담하고 통이 큰 목표를 세웠다.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고 생산공정의 현대화를 힘있게 추진해나가는 속에서도 공장의 과학기술적잠재력을 남김없이 발동해나가고있다. 생산에 필요한 모든 원료들을 주체화하는 길에 생산정상화의 열쇠가 있다는것을 심장깊이 자각한 이들은 유능한 기술자, 로동자들로 여러 기술혁신조를 조직하고 그들이 점령해야 할 단계별목표들을 뚜렷하게 제시하였다. 원료의 주체화를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모든 과학기술적문제들을 기어이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가려는 이들의 투철한 자력자강의 정신과 혁명적인 사업기풍에 의하여 전투분위기가 더욱 고조되고있다.

공장의 일군들은 기술혁신조성원들속에 들어가 정치사업을 앞세우는 한편 그들이 과학연구활동에서 적극성과 창발성을 높이 발양하도록 떠밀어주었다. 단계별목표를 성과적으로 수행하는데서 나서는 원료와 자재, 실험기구들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한 사업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실험에 유리한 여러 장소들에 실험실들이 전개되였다.

공장초급당위원회의 지도밑에 기술혁신조성원들의 과학연구활동과 생활조건을 충분히 보장해주기 위한 사업이 보다 적극적으로 벌어지고 공장안에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운동, 경험교환운동의 불길이 더욱 세차게 타번지는 속에 실험조건을 완비하고 방대한 과학기술자료수집을 비롯한 기초기술준비를 완성하는 1단계과제수행에서 큰 전진이 이룩되였다.

흥남제약공장은 전국의 제약공장들에 원료약품을 생산보장해주고있는 어머니공장이라고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믿음을 심장깊이 간직하고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뜻깊은 올해에 의약품생산에서 전례없는 성과를 이룩하는것과 함께 원료의 주체화를 위한 투쟁에서 반드시 통장훈을 부르고야말 드높은 신심에 넘쳐있다.

본사기자 김성민

## 광명성절에 즈음하여

### 수리아특명전권대사 연회 마련

광명성절에 즈음하여 땀맘 쑬레이만 주조 수리아아랍공화국 특명전권대사가 20일 대사관에서 연회를 마련하였다.

연회에는 외무상 리용호동지, 대외문화련락위원회 부위원장 서호원동지, 관계부문 일군들이 초대되였다.

수리아대사관 성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연회에서는 땀맘 쑬레이만 특명전권대사가 연설하였다.

그는 주체사상을 발전풍부화시키시고 독창적인 선군정치로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을 굳건히 수호하시였으며 사회주의강국건설의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업적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각하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은 과학과 공업의 높은 령마루에 올라섰으며 위대한 **김일성**주석각하와 **김정일**령도자각하의 념원은 빛나게 실현되고있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선대수령들에 의하여 마련된 수리아와 조선사이의 관계는 바사르 알 아싸드대통령각하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각하의 관심속에 계속 발전되여왔다고 하면서 세계제국주의와 제1선에서 맞서싸우고있는 친선적인 조선인민에게 보다 큰 진보와 번영이 있기를 축원한다고 말하였다.

다음으로 리용호동지가 연설하였다.

그는 수리아의 벗들이 해마다 우리 인민과 함께 광명성절을 경축하는것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심의 발현인 동시에 선대수령들에 의하여 마련된 두 나라사이의 전통적인 친선협조관계를 확대발전시켜나가려는 수리아지도부의 의지를 보여주는것으로 된다고 말하였다.

우리 공화국정부는 앞으로도 미제와 유태복고주의자들의 침략책동을 짓부시고 나라의 자주권과 안정, 령토완정을 수호하기 위한 수리아정부와 인민의 정의의 투쟁에 변함없는 지지성원을 보낼것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날로 강화발전되고있는 두 나라사이의 친선협조관계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바사르 알 아싸드대통령각하의 옳바른 령도밑에 수리아정부와 인민이 반드시 최후승리를 이룩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였다.

연회참가자들은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건강을 축원하여, 존경하는 바샤르 알 아싸드대통령각하의 건강을 축원하여, 조선과 수리아사이의 친선관계발전을 위하여 잔을 들었다.

## 조선꾸바단결위원회 년차회의 진행

조선꾸바단결위원회 년차회의가 20일 평양에서 진행되였다.

회의에는 조선꾸바단결위원회 위원장인 교육위원회 위원장 김승두동지, 대외문화련락위원회 부위원장 서호원동지를 비롯한 조선꾸바단결위원회 성원들과 헤쑤스 델로스 앙헬레스 아이쎄 쏘뽈롱고 주조 꾸바공화국 특명전권대사, 대사관성원들이 참가하였다.

회의에서는 꾸바공산당의 령도밑에 반제자주,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는 형제적꾸바인민의 정의의 위업을 적극 지지성원하기 위한 위원회의 지난 1년간 사업정형이 총화되였으며 올해활동계획이 토의되였다.

### 2018년 아시아축구련맹컵경기대회 9조(동아시아지역) 예선단계경기소식

## 우리 나라의 홰불팀이 몽골의 에르침팀을 3:0으로 이겼다

2018년 아시아축구련맹컵경기대회 9조(동아시아지역) 예선단계 우리 나라의 홰불팀과 몽골의 에르침팀사이의 2차경기가 20일 김일성경기장에서 진행되였다.

이번 경기는 홰불팀이 몽골에서 진행된 1차경기에서 에르침팀을 4:0으로 이긴 가운데 벌어졌다.

경기가 시작되자 우리 팀 선수들은 드센 공격으로 상대팀 방어진을 압박하였다. 경기주도권을 틀어쥐고 높은 공다루기기술과 재치있는 2, 3인결합으로 상대방 문전을 위협하며 확고한 우세를 차지한 우리 선수들은 전반전 27분경에 득점한데 이어 두개의 꼴을 련이어 성공시켰다.

경기에서는 홰불팀이 에르침팀을 3:0으로 이겼다.

결과 2018년 아시아축구련맹컵경기대회 9조에는 우리 나라의 홰불팀과 4.25팀, 벤피까 마카오팀(중국 마카오), 항원팀(중국 대북)이 속하여 래왕의 방식으로 련맹전을 진행하게 된다.

## 주체사상연구조직대표단들 귀국

느. 볼드 몽골주체연구쎈터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몽골주체사상연구조직대표단과 후지이 야스히또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 군마련락회 부대표를 단장으로 하는 일본주체사상연구회대표단이 20일 비행기로 귀국하였다.

【조선중앙통신】

## 절절한 그리움속에 피여나는 꽃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군대와 인민의 마음속에 자리잡은 장군님의 모습은 영원히 지워질수 없습니다.》**

청진시 포항구역 수원2동 49인민반에는 《꽃가정》으로 불리우는 한 가정이 있다.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을 안고 불멸의 꽃 **김정일**화를 피워가는 황대성, 량순화동무의 가정이다.

황대성동무의 집에는 수원제1중학교에 다니는 황진혁학생이 해마다 도에서 진행되는 **김정일**화전시회에 참가하여 받은 여러개의 증서들이 있다. 그 증서들을 바라보는 우리에게 어머니 량순화녀성은 아들이 불멸의 꽃을 제손으로 피워가던 나날에 있은 가지가지의 이야기들을 들려주었다.

몇해전 **김정일**화전시회장을 참관하고나서 불멸의 꽃을 피워갈 결심을 다지던 이야기, 꽃재배와 관련한 도서들도 탐독하고 원예전문가들을 찾아다니며 재배경험을 하나하나 배우던 이야기, 낮에 알맞춤한 빛세기를 보장하기 위해 해가림발을 만들던 이야기, 밤에는 보충조명등을 켜고 온습도보장을 위해 애쓰던 이야기…

정녕 무심히 들을수 없었다.

키보다 마음이 먼저 자라는 황진혁학생을 도와 아버지와 어머니, 누나도 불멸의 꽃이 가정에서 활짝 피여나도록 지성을 다하였다. 아들이 부엽토를 지고온 날이면 온 가족이 떨쳐나 자그마한 돌이나 나무조각 하나라도 있을세라 채로 치고 또 쳐서 화분에 보태주며 심혈을 기울였다.

뜻깊은 올해의 광명성절에는 꽃잎도 더 붉고 푸른 잎새도 더 싱싱한 천하제일명화를 피우자고 매일매일 꽃생육상태를 재배일지에 적어가며 온갖 정성을 기울이던 황진혁학생은 어느날 새벽에 남먼저 일어나 꽃화분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이것 보세요. 하루밤 지나더니 꽃송이가 더 커졌어요. 꽃이 더 활짝 피여나며 웃는 소리가 막 들리는것 같아요.

아버지장군님께서 환하게 웃으시며 공부를 더 잘하여 훌륭한 인재로 자라나라고 축복해주시는것만 같아요.》

우리는 함북땅의 평범한 가정에서 울려나온 이 심장의 토로를 통해서도 불멸의 꽃을 피워가며 위대한 장군님을 끝없이 그리워하는 이 나라의 수천만 아들딸들의 불타는 충정을 다시한번 가슴뜨겁게 느낄수 있었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 미래를 위해 바치는 진정

우리 당의 후대사랑의 숭고한 뜻을 더 활짝 꽃피우기 위해 헌신하고있는 사람들속에는 **신천군탁아소유치원물자공급소 소장 박현숙동무**와 종업원들도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무슨 일을 하나 하여도 자기 대에는 비록 덕을 보지 못하더라도 먼 후날에 가서 후대들이 그 덕을 볼수 있게 가장 훌륭하게, 완전무결하게 하여야 한다는것이 장군님의 숭고한 뜻이였으며 늘 하시는 간곡한 당부였습니다.》**

지난 1월초 어느날 종업원들의 모임이 열린 공급소의 사무실에는 긴장한 분위기가 흘렀다.

소장 박현숙동무가 올해에 수행해야 할 전투목표초안을 세우고 집체토의에 붙이였는데 몇가지 문제는 좀처럼 의견일치를 보지 못하고있었던것이다.

그중의 하나가 공급소자체의 힘으로 빵생산실과 종합축사를 건설하기로 한것이였다. 여기서 빵생산실은 이미 군에서 운영하고있는것이 있으나 탁아소유치원물자공급소가 어린이영양제공급을 개선하기 위해 다시금 잘 건설하기로 한 대상이였다.

그런데 일부 종업원들이 원료와 집짐승먹이보장대책이 선행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런 큰 공사를 벌려놓겠는가고 하면서 공급소는 우에서 주는 물자를 받아 군안의 탁아소와 유치원들에 책임적으로 공급하는것이 임무이지 생산단위는 아니라고 머리를 저었다.

침묵이 흘렀다.

이때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난 소장은 낮으나 뜨거운 목소리로 말하였다.

《로력이 적은 단위의 실정에서 볼 때 방대한 건설과제입니다. 당장 덕을 보게 되는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어린이들에게 덕을 주게 될 그 일을 외면한다면 누가 하겠습니까. 래일을 위해, 후대들을 위해 목표를 높이 세우고 땀흘려 실천하는 사람이 우리 당이 바라는 진짜 애국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군의 말은 길지 않았다. 하지만 종업원들의 자책은 컸다.

그러는 종업원들의 머리속에는 몇해전 준공식을 앞둔 원산육아원, 애육원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원아들이 살게 될 훌륭한 새 집을 돌아보시며 오늘의 하루하루를 후대들을 위해 더 많은 땀을 흘리고 그 무엇도 아끼지 말아야 하겠다는 결심이 더욱 굳어진다고 하신 말씀을 전해들으며 가슴적시던 나날이 떠올랐다.

전투목표에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후대사랑을 더 활짝 꽃피우려는 일군의 높은 정신세계가 슴배여있었다.

그 진정에서 종업원모두는 난관앞에 동요했던 자기들을 채찍질하며 래일을 위한 오늘의 전투목표를 보다 높이 세우고 그 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돌격대가 될 결의를 다지였다.

공급소에서는 대중의 앙양된 열의에 맞게 집체적협의를 거쳐 동원적인 전투목표를 그날로 다시 세웠다.

뻐가루, 과일가루, 각종 남새가루 등 여러가지 영양가루말림설비와 량곡가공설비, 태양열남새온실, 버섯재배실을 비롯한 많은 대상들의 개건 및 건설계획이 전투목표에 보충되였고 단계별에 따르는 매 종업원들의 전투목표와 그들이 차지할 좌지가 명백히 정해졌다.

이렇게 되여 단위의 올해전투목표는 혁신적안목에서 높이 세워지게 되였으며 모든 종업원들이 그 수행에 과감히 떨쳐나섰다.

군당위원회, 군인민위원회책임일군들은 이들의 결의를 적극 지지해주고 떠밀어주고있다.

공급소에서는 벌써 전투목표수행을 위한 사상적, 물질적준비를 빈틈없이 갖추고 총공격전에 들어갔다.

비록 크지 않은 단위이지만 래일을 위한 오늘의 전투목표를 대담하게 세운 이곳 종업원들은 제기되는 문제들을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가면서 미래를 위해 더 많은 땀을 바쳐가고있다.

본사기자 리승철

## 수산업발전에 이바지할 가치있는 연구성과 달성

동해수산연구소의 연구사들이 지칠줄 모르는 사색과 탐구, 피타는 노력으로 경제적의의가 큰 연구성과들을 현실에 도입하여 수산물생산을 힘있게 추동하였다.

일군들은 정치사업을 앞세워 대중의 정신력을 최대한 발양시키는 한편 구체적인 전망목표와 단계별목표밑에 력량을 집중하여 수산부문에서 절실히 요구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최단기간에 해결하도록 조직사업을 짜고들었다.

당의 뜻을 심장에 새긴 이곳 연구사들은 현실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에 대한 연구사업을 심화시켜 우리 식의 명태양어기술을 연구완성하였다.

사회주의조국의 바다를 황금해로 빛내여갈 드높은 애국열의속에 이들은 실용성있는 어장람색지원체계를 개발함으로써 어장실태와 물고기들의 생태적특성에 따라 수산물생산을 과학화할수 있게 하였다.

또한 진취적인 사색과 발견으로 안내토시에 의한 추진기의 효률을 높여 고기배들의 속도를 이전에 비해 훨씬 증가시키면서도 연유를 15~20% 절약할수 있게 하였다.

수산과학연구성과이자 수산물생산실적이라는것을 명심한 연구사들은 집체적지혜를 합쳐 새로운 어황에 보체계 《단풍3.0》을 확립함으로써 어황을 일별, 주별, 순별로 예보해주어 수산사업소들에서 어획고를 훨씬 높일수 있게 하였다.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과감히 뚫고 도루메기어업을 과학화하고 능률적인 어구들을 창안하기 위한 연구사업에서도 많은 성과들을 이룩하고있다.

【조선중앙통신】

# 반제반미교양, 계급교양을 더욱 강화하여 우리의 혁명진지, 계급진지를 튼튼히 다지자

## 계급교양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

계급교양을 강화하는것은 우리 혁명의 전도, 조국의 운명과 관련되는 중차대하고 사활적인 문제이다.

오늘 우리의 사회주의강국건설은 미제와 계급적원쑤들과의 첨예한 대결속에서 진행되고있다. 인민군군인들과 인민들을 높은 계급의식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사업을 만성적으로 대하면서 소홀히 하면 우리의 혁명진지, 계급진지가 약화되고 피흘려 쟁취한 혁명의 전취물을 끝까지 지켜낼수 없다. 온갖 원쑤들의 최후발악을 짓부시고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결정적승리를 쟁취하자면 계급교양을 강화해나가야 한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조직들과 근로단체조직들에서 군인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반제반미교양, 계급교양의 도수를 더욱 높여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시기 계급교양을 강화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무엇인가.

우선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적과 평화에 대한 환상은 곧 죽음이라는 철리를 깊이 인식시키는것이다.

일반적으로 환상이란 과학적근거가 없이 무엇이 이렇게 될수 있지 않겠는가 하고 마음속으로 생각하거나 상상하는것을 말한다. 환상가운데는 혁명하는 인민의 운명개척에 무익하며 파멸적인 후과를 가져오는것이 있다. 그것이 바로 계급적원쑤들에 대한 환상이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의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시기 수산리에서 있은 비극적참변을 되새겨보자. 우리 인민군대의 재진격으로 쫓겨나게 된 계급적원쑤들은 마을들을 돌아다니며 숨어있는 사람들에게 알리라, 용서해주겠으니 이름이나 신분을 확인할수 있는 도장이나 증서를 가지고 찾아오라, 그러면 사람을 확인하고 돌려보내겠다고 너스레를 떨어댔다. 놈들은 저들의 꾀임에 속아넘어가 찾아온 수백명의 사람들을 창고에 가두어넣고 도망치기 전날 밤 모두 불태워죽이는 피비린 살륙만행을 감행하였다. 이것은 미국놈과 《치안대》놈들도 사람인데 설마 자기를 죽이기야 하겠는가 하는 어리석은 환상을 가지고있은탓에 초래된 비극이다.

원래 계급적원쑤들에게서 그 어떤 관용이나 인간성을 기대하는것자체가 오산이다. 저들의 세상을 빼앗긴 착취계급이 그것을 무너뜨린 근로계급을 가만히 놔둘수 없으며 사회주의의 극악한 원쑤인 미제침략자들이 로동당원을 살려둘수가 없는것이다.

독사는 열번 허물을 벗어도 독사이듯이 아무리 세월이 흐르고 세대가 바뀌여도 변할수 없는것이 계급적원쑤들의 침략적, 야수적본성이다. 제국주의가 있는 한 지구상에는 공고한 평화란 있을수 없다. 력대로 미국은 조선반도에서 북남관계개선과 정세완화분위기가 나타나면 의도적으로 정세를 격화시켰다. 《평화의 수호자》로 자처하는 미국에 의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리비아를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전쟁마당으로, 피의 란무장으로 변하였다. 력사와 현실은 제국주의반동들이 평화타령을 늘어놓을수록 높은 대적관념을 견지하고 보다 긴장하게 살며 투쟁해야 한다는것을 깨우쳐주고있다.

지금 세계가 공인하는 전략국가로 솟구쳐오른 주체조선의 무진막강한 국력앞에서 절망에 빠진 미제는 광태를 부리고있다. 세계면전에서 우리 공화국의 《완전파괴》와 《절멸》을 줴친 트럼프의 망발은 지난 조선전쟁말기 저들의 패배가 기정사실화되자 《북조선의 78개 도시들을 지도우에서 완전히 없애버리겠다.》고 떠벌이던 미제살인귀의 폭언과 다를바 없다. 우리는 제국주의의 침략적본성은 그 멸망이 가까와질수록 더욱 횡포하고 무모해지며 그에 따라 침략전쟁의 위험도 더 커지게 된다는것을 명심하고 혁명의 붉은 총창을 날카롭게 벼려나가야 한다.

또한 제국주의자들이 떠드는 《제재완화》나 《경제협력》에 대한 사소한 미련도 배격하고 제힘으로 번영을 이룩하겠다는 투철한 정신으로 인민들을 무장시키는것이다.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은 그 어떤 조건부를 내흔들며 제재를 완화하겠다느니, 원조와 협력을 하겠다느니 하는 달콤한 말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반제자주, 사회주의기치를 높이 추켜든 나라와 인민에 대한 제국주의반동들의 제재봉쇄는 절대로 완화되거나 해제될수 없다. 얼마전 꾸바에 대한 미국의 경제봉쇄를 해제할데 대한 유엔총회결의가 191개 성원국들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채택되였다. 유독 미국과 이스라엘만이 이 결의에 반대표를 던졌다. 사회주의를 압살하려는 미제의 흉심은 절대로 변할수 없다.

군력이 강해지면 적들이 스스로 제재도수를 늦추리라고 보는것도 오산이다. 오히려 원쑤들은 군사적힘으로 이룰수 없는 압살야망을 어떻게 하나 초강도제재로써 실현해보려고 발악하게 된다. 공화국핵무력건설에서 비약적인 성과가 이룩된 지난해에 우리 나라에 대한 야만적인 《제재결의》가 무려 4차례나 조작된 사실이 그것을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이 떠드는 《원조》라는 것도 결국 하나를 주고 열을 빼앗는 략탈의 대명사이다. 미국이 《원조》와 《개발》이라는 간판밑에 손을 뻗친 많은 발전도상나라들이 경제적부흥은커녕 값싼 원료원천지, 로동력공급지, 과잉상품판매시장으로 전락되였으며 차례진것은 정치적혼란과 빈궁뿐이였다.

오직 자력자강만이 살길이며 우리가 갈길이다. 지난해에 우리는 생존자체를 위협하는 극악무도한 제재와 봉쇄의 엄혹한 난관속에서도 자체의 힘으로 남들이 엄두도 내지 못할 빛나는 승리를 쟁취하였다. 10년이고 100년이고 제재할테면 하라, 지금까지 제재를 받으면서도 우리가 별일없이 살아왔는데 이제 제재를 더 받는다고 하여 못살아갈줄 아는가, 이것이 우리 인민의 배짱이다. 날로 극대화되는 적들의 제재압살책동은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계급적으로 더욱 각성시키고 최후승리에 대한 신심을 백배해줄뿐이다.

모든 당 및 근로단체조직들은 계급적원쑤들의 반공화국압살책동이 보다 악랄해지고 교활해지는데 맞게 계급교양의 도수를 더욱 높임으로써 천만군민을 반제계급의식이 뼈속까지 꽉 들어찬 계급의 전위투사들로 억세게 준비시켜나가야 할것이다.

조 학 철

## 원쑤에 대한 환상은 곧 죽음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미제와 계급적원쑤들에 대해서는 털끝만 한 환상도 가져서는 안됩니다.》**

승냥이가 양으로 될수 없듯이 미제와 계급적원쑤들의 야수적본성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여기에 미제와 계급적원쑤들과는 한하늘을 이고 살수 없으며 끝까지 결판을 내고 반드시 최후승리를 이룩하여야 한다는 계급투쟁의 철리를 다시금 새겨주는 피의 교훈이 있다.

1950년 10월 어느날 깊은 밤 천녀봉의 산발을 조심히 내리는 한 농민이 있었다. 내려가면 안된다는 사람들의 권고를 뿌리치고 떠난 연탄군의 어느 한 리에 살던 김재옥이라는 농민이였다. 몸이 불편해 미처 피신하지 못하고 집에 남아있는 어머니와 안해에 대한 걱정이 앞서 그는 걸음을 다우쳤다.

그러나 집에서 그를 맞이한것은 어머니와 안해가 아니라 집주변에 매복해있던 《치안대》놈들이였다. 애국미를 감추어둔 곳을 알아내기 위해 피눈이 되여 날뛰던 놈들은 산에서 누구인가 분명히 내려올것이라고 타산하고 기다리고있었던것이다.

놈들은 그를 둘러싸며 이게 얼마만인가고 하면서 반가운 시늉을 하였다.

《〈치안대〉에 한동네 사람들이 있는데 산에 들어가 고생하다니… 우리와 함께 가세.》

해방후에도 건달군으로 소문났던 성이 지가인 놈과 자기 옆집에서 살던 놈이 제법 친절하게 지껄이며 그의 팔을 잡았다. 한동안 어정쩡해있던 그는 잘 아는 사람들인데 설마 죽이기야 하겠는가 하는 생각에 제발로 놈들의 소굴로 따라갔다.

산에서 내려온 귀한분을 잘 모시라고 한놈이 비틀린 목청으로 고아대자 미국제군화를 신은 졸개놈들이 그를 걷어차며 창고로 끌고갔다.

다음날 그의 늙은 어머니와 안해가 찾아왔다.

주먹밥안에 자그마한 쇠꼬챙이를 넣었으니 금이 간 창고뒤쪽의 흙벽을 뚫고 어서 몸을 피하라는 안해의 말에 그는 도리머리를 저었다.

《걱정마오. 내가 해방후에 사람을 죽였소 열집사람과 다투기라도 했소? 나야 한뉘 농사밖에 지은게 없는데 아무렴 한동네에서 한우물 물을 먹은 사람들이 설마하니 날 죽이기야 하겠소. 이러다 오늘래일 내보내주겠지.》

하지만 그의 이런 생각은 참으로 어리석은것이였다.

선심을 베풀며 그에게서 애국미를 감추어둔 곳을 알아내려던 놈들은 그가 모른다고 뻗치자 드디어 감추고있던 본성을 드러내였던것이다. 놈들은 그의 늙은 어머니와 안해마저 잡아가두고 차마 눈뜨고 볼수 없는 악착한 고문을 들이대였다.

그는 사형장에 끌려가서야 자기의 잘못을 뼈아프게 깨달았다. 증오의 불길이 타번지는 눈으로 놈들을 쏘아보며 그는 사람들에게 웨쳤다.

《여러분, 원쑤들에게 속지 마십시오. 저놈들도 사람인데 설마 사람을 죽이기야 하겠는가고 생각하다가는 나처럼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원쑤들과는 마지막피 한방울이 남을 때까지 맞서 싸워야 합니다.》

그의 죽음은 원쑤에 대한 환상에 사로잡히면 계급투쟁의 파녁을 잃게 되고 자기를 지켜낼수 없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었다.

이것은 결코 먼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다. 피에 절은 계급투쟁사가 보여준 뼈저린 교훈이고 두고두고 잊지 말아야 할 계급투쟁의 철리인것이다.

그때로부터 세월은 멀리도 흘렀다.

그러나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피의 절규는 오늘도 우리의 귀전에 들려오고있다.

계급적원쑤들에게서 자비와 관용을 바라는것보다 더 어리석은 일이 없다고, 원쑤와는 끝까지 맞서 싸워야 한다고.

본사기자 신 철

## 피맺힌 원한을 잊지 말자

### 국악한 살인마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미제는 국제법과 인륜도덕을 어지없이 짓밟으면서 가장 야만적이며 범죄적인 세균전을 서슴없이 감행하였다.

1952년 1월말부터 3월말에 이르는 두달동안에만도 미제는 공화국북반부의 수백개의 지점에 여러가지 세균들이 들어있는 세균탄과 물건들을 수많이 떨구었다. 그리고 그해 5월하순부터는 세균전만행을 더욱 대규모적으로 감행하였다.

뿐만아니라 조선반도중부를 횡단하는 하나의 감염지대를 설정하고 여기에 정기적으로 세균탄을 떨구었다.

당시 미제의 만행을 현지에서 조사한 국제민주법률가협회조사단은 조사보고에 이렇게 썼다.

많은 경우들에 있어서 콜레라 및 페스트발생과 감염된 곤충의 발견사이에는 장소와 시간의 일치성이 있다. 곤충들이 발견된 장소에서 아주 가깝게 용기들이 발견되였는바 그 구조는 다량의 곤충들을 운반하는데 사용될수 있도록 되여있다. 그 용기의 하나에는 영어로 표식되여있는것이 발견되였다. 이런것들을 발견한 직후에 페스트와 콜레라가 발생하였다. …

신성한 이 땅에 침략전쟁의 불을 지르고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살륙만행을 저지른 극악한 살인마—미제, 우리 군대와 인민은 미제살인귀들의 죄행을 영원히 잊지 않을것이며 반드시 천백배로 복수하고야말것이다.

### 검은 《비》에 비낀 본성

인류력사의 그 어느 갈피에서도 일제처럼 다른 민족의 민족성을 뿌리채 뽑아버리려고 미쳐날뛴 야수의 무리들은 찾아볼수 없다.

일제는 조선민족의 깨끗한 넋이 깃들어있는 흰옷을 입지 못하게 함으로써 우리 민족의 고유한 풍습마저 말살하려고 하였다.

나라없던 그 세월 어느 한 신문에는 검은 《비》에 대한 기막힌 기사가 실리였었다. 그 내용인즉 이러하다.

어느 한 지방의 시장은 장날을 맞아 아침부터 사람들로 붐비였다. 그런데 난데없이 검은 물방울이 소낙비처럼 쏟아져내려 수천명의 사람들을 아연실색케 하였다.

검은 《비》가 쏟아지는 시장에서는 소동이 일어났다. 그런데 그 검은 《비》는 하늘에서 내린것이 아니였다.

조선사람들의 민족성을 모욕하고 말살하기 위하여 수많은 일본망나니들이 시장에 몰려들어 물총을 가지고 온 장안에 퍼부은 검정물이였다.

새해를 맞으며 흰옷을 입고 장도 보고 설인사도 할겸 집을 나섰던 사람들은 뜻밖의 먹물벼락을 맞고 일제의 비렬하고 악랄한 행위에 치를 떨었다.

우리의 민족성에 먹칠을 하려고 악착스럽게 발광한 일제, 그날의 검은 《비》는 언제 어느때 가서도 변할수 없는 일본반동들의 야비한 본성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 흡혈귀의 마수는 그 어디에나

해방전 풀뿌리를 캐먹으며 방랑하던 성근이네 일가가 강동땅의 한 마을에 이르렀을 때였다.

그들이 마을에 들어왔다는것을 안 지주놈은 산비탈 뙈기밭을 미끼로 성근이네를 부려먹으려고 하였다.

성근이네 일가는 뙈기밭 몇평을 얻어부치는 대신 지주놈의 집에 한해동안 땔 나무를 거저 해주었다.

그해 가을이였다. 온 가족이 손톱이 닳아빠지도록 가꾼 보람이 있어 돌투성이 뙈기밭에서도 다섯가마니의 조를 거두게 되였다.

어느날 저녁 성근이네 집에 나타난 지주놈은 방금 마당질을 하여 쌓아놓은 조가마니를 세여보더니 《소작료는 그만두고 가져간 좁쌀값에 리자나 계산해서 다섯가마니만 바치게.》 하고 지껄여댔다.

성근의 아버지는 억이 막혀 하소연했으나 지주놈은 코방귀를 뀌면서 앞세우고 온 소달구지를 들이대게 하였다. 성근이와 그의 아버지가 달구지를 막아나섰지만 죽도록 매만 맞고 또다시 방랑의 길에 오르지 않으면 안되게 되였다.

이것이 나라없던 세월 살길을 찾아 방랑길을 헤매면서 우리 인민이 겪어야 했던 수난이였다.

본사기자

## 투철한 반제계급의식을 지닌 열혈투사들로

### 김책공업종합대학 당위원회 사업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세월이 흐르고 세대가 바뀔수록 순간도 늦추거나 소홀히 할수 없는것이 반제계급교양입니다.》**

반미대결전이 그 어느때보다 격렬하게 벌어지고있는 오늘 반제반미교양, 계급교양을 강화하는것은 우리 혁명의 전도, 조국의 운명과 관련되는 중차대한 문제로 나선다.

청년대학생들을 투철한 반제계급의식을 지닌 열혈투사, 계급투쟁의 맹수들로 키워나가는 김책공업종합대학 당위원회 일군들의 사업은 당의 의도에 맞게 계급교양의 도수를 더욱 높여나가는데서 중요한 문제점들을 시사하여준다.

#### 일군들의 관점이 중요하다

몇해전 대학당위원회 책임일군은 어느 한 학부초급당위원회의 사업정형을 료해하는 과정에 심중한 문제점을 포착하게 되였다.

대학생들에 대한 계급교양을 청년동맹조직에만 방임해두고있었던것이다. 해야 할 사업이 많아 어쩔수 없는것으로 여기는 초급당일군들의 태도는 당책임일군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하였다.

다른 초급당위원회들의 실태를 알아보니 계급교양에 낯을 적게 돌리는 편향들이 여러모로 나타났다. 실례로 당일군들이 청년동맹조직의 계급교양계획에 반영된 내용들을 잘 모르고있는가 하면 계급교양을 6.25미제반대투쟁의 날을 비롯한 계기들에 집중적으로 하는것으로 대치하고있었다.

원인은 계급교양을 중차대한 사업으로 여기는 관점이 투철하지 못한데 있었다.

모든 당일군들이 계급교양에 깊은 관심을 돌리도록 하기 위하여 당책임일군들부터 솔선 모범을 보이였다. 아무리 바빠도 대학청년동맹위원회의 사상교양사업계획을 정상적으로 료해하면서 계급교양사업을 항구적으로 틀어쥐고나가도록 방향을 그어주고 필요한 대책을 세워주었다.

학생청년기동선동대가 계급교양주제의 선동극 《순간도 잊지 말자》를 준비할 때였다.

작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료해한 리영 대학당위원회 부위원장은 계급적원쑤들의 변하지 않는 본성을 보여주는 보다 생동한 자료를 첨부하도록 하였다. 하여 선동극에는 우리 제도에 대한 앙심을 품고 적대행위를 감행하던 계급적원쑤들의 기록장에 대한 실재한 사실자료가 반영되여 학생들속에서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키게 되였다.

당위원회에서는 계급교양거점들에 대한 참관사업이 진행될 때마다 초급당일군들이 학생들을 이끌고 가도록 하였다. 얼마전에도 기계과학기술대학 초급당일군은 학생들을 인솔하고 중앙계급교양관을 참관하였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당일군들속에서는 계급교양을 더없이 중요한 사업으로 틀어쥐고나가는 기풍이 확립되게 되였다.

당일군들이 옳은 관점을 지니고 달라붙으니 여러 계기들을 계급교양에 효과있게 리용할수 있는 좋은 방도들이 탐구되였다.

교원들이 실효가 큰 계급교양자료들을 가지고 강의시작 5분전교양을 실속있게 진행하게 되였고 청년대학생들에게 조국수호정신을 심어주기 위한 교양사업도 계급교양과 밀착시켜 진행하게 되였다.

이것은 계급교양을 중차대한 사업으로 틀어쥐고나갈데 대한 당의 의도를 관철하는데서 일군들의 관점문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보여준다.

#### 방법이 참신해야 실효가 크다

언제인가 한 청년동맹초급일군이 5대교양마당에서 학급학생들을 대상으로 계급교양을 하는 과정을 눈여겨보던 당위원회일군의 생각은 깊어졌다. 계급교양사업이 실무적으로 진행되고있었던것이다.

이를 계기로 당위원회에서는 지난 기간의 사업과정을 심각히 돌이켜보았다. 초급당위원회들에서 계급교양주제의 직관물들을 품들여 게시하게 하고 교양마당운영을 정상적으로 하도록 요구성을 높였지만 큰 실효를 거둘수 있는 참신한 방법론을 찾아쥐지 못하다보니 교양사업이 실속있게 진행되지 못하였다.

그후 당위원회에서는 청년대학생들의 심리적특성과 단위의 실정에 맞는 교양방법을 부단히 연구하였다.

그중의 하나가 시랑송 및 웅변모임이다.

지난해 100여명의 학생들이 신천박물관을 참관하고 돌아왔을 때였다.

당위원회일군들은 그들의 반영을 들어보았다. 모두가 미제와 계급적원쑤들에 대한 치솟는 적개심을 금치 못해하였다. 거점을 통한 계급교양은 확실히 실효가 컸다. 이런 계급교양거점들이 제한되여있는 조건에서 대학의 수많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상전의 포성을 중단없이 울릴 방도를 모색하던 당위원회일군들은 신천박물관을 참관한 학생들이 자기의 소감을 자작시나 웅변글에 담도록 하고 학부별로 시랑송 및 웅변모임을 조직하게 하였다.

실효는 컸다. 인간의 탈을 쓴 미제야수들의 극악무도한 살인만행을 단죄하며 분노를 터치는 학생들도, 그들의 피타는 절규를 듣는 학생들도 모두가 복수심으로 가슴을 불태웠다. 모임장소들은 그대로 미제와 계급적원쑤들의 야수적만행을 규탄하는 성토장으로, 피끓는 청춘들의 반미보복열기가 활화산처럼 타번지는 계급투쟁마당으로 되였다.

이를 통하여 대상의 특성에 맞는 교양방법의 위력을 깊이 절감한 당위원회는 실효가 큰 교양방법에 대한 연구를 더욱 심화시켜나갔다.

지난 시기 당위원회에서는 학생들의 배왕이 비교적 많은 곳들에 계급교양주제의 직관물들을 게시하였었다. 그러나 대학의 규모가 크다보니 모든 학생들에 대한 교양사업에 리용하는데서 일정한 제한성이 있었다. 이를 극복할 방도를 찾던 당위원회일군들은 학생들 누구나 리용하는 콤퓨터구내망에 시선을 돌리였다. 학생들이 창작한 계급교양주제의 작품들을 《대학생생활》란에 게시하니 열람자수가 늘어나고 창작열의도 더욱 높아졌다.

당위원회의 지도밑에 진행되는 영화실효모임도 주어진 조건을 효과있게 리용하면서도 청년들의 심리를 잘 반영한 교양방법이라고 할수 있다.

당위원회에서는 학생들이 학급별로 다기능화된 교실에 설치된 텔레비죤을 통하여 예술영화 《전초선》, 《삶의 권리》를 비롯한 계급교양주제의 영화들을 시청하고 실효모임을 진행하게 하였다.

이렇듯 당위원회가 참신한 방법론을 탐구하며 계급교양을 실속있게 벌려나가는 과정에 학생들은 투철한 반제계급의식을 지닌 열혈투사, 계급투쟁의 맹수들로 자라나게 되였다.

미국의 늙다리미치광이 트럼프가 국제무대에서 감히 우리의 최고존엄을 건드리며 우리 국가의 《완전파괴》, 《절멸》을 줴쳐댄 소식에 접한 그날로 대학의 청년학생들모두가 인민군대입대, 복대를 열렬히 탄원한것만 보아도 그들의 계급의식이 얼마나 높은가를 잘 알수 있다.

이곳 당위원회사업은 계급교양을 중차대한 사업으로 틀어쥐고 방법론있게 전개해나갈때 우리의 계급진지를 철통같이 지켜나갈수 있다는것을 보여준다.

본사기자 김 순 영

## 강사들의 수준과 교양사업의 실효

### 중앙계급교양관 당세포에서

계급교양강사들은 계급교양의 전초선을 지켜선 우리 당의 핵심들이며 인민군군인들과 근로자들속에 계급의식을 심어주는 교양자, 직업적인 혁명가들이다.

강사들의 수준은 계급교양의 성과를 좌우하는 관건적인 문제이다. 특히 강사들속에서 끊임없이 세대교체가 이루어지는 조건에서 이것은 더욱 절실한 문제로 나서고있다.

강사들의 수준을 높이는데 모를 박고 전개해나가는 중앙계급교양관 당세포 사업에는 주목되는것이 있다. 신입강사들의 실력을 높여주기 위한 분공조직사업을 정황에 맞게 잘 짜고들고있는것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세포는 언제나 당적분공을 옳게 조직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합니다.》**

윤희옥당세포위원장이 이 사업을 중시하게 된 계기가 있다.

언제인가 중앙계급교양관을 찾은 참관자들과 함께 신입강사의 해설에 귀를 기울이던 당세포위원장은 그의 강의술이 낮아 대중의 심금을 울리지 못한다는것을 느끼게 되였다.

생각이 많았다. 이미전부터 당세포에서는 신입강사들의 자질향상문제에 관심을 두고 오랜 강사들이 그들의 강의술을 높여주도록 분공조직사업을 해왔었다. 그런데 기일이 퍼그나 지났는데도 그 신입강사의 자질향상에서 큰 전진이 없다는것은 그를 맡은 강사가 당적분공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있다는것을 말해주고있었던것이다.

당세포위원장은 곧 그를 맡은 강사를 만났다. 강사와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 당세포위원장은 자신의 사업을 심각히 돌이켜보게 되였다.

강사들은 하루종일 여러 참관대렬을 이끌고 다니면서 강의를 한다. 그리고 참관이 제기되지 않을 때에는 자료발취를 하고 새로 고증된 학술자료들을 강의안에 반영하는것과 함께 그것을 환히 꿰들기 위한 학습을 진행하군 한다. 한마디로 하루사업이 긴장하게 맞물려 진행된다.

그러다보니 신입강사들에게 품들일 시간적여유가 많지 못하였다. 결국 신입강사들의 수준이 높지 못한 기본원인은 있을수 있는 모든 정황을 고려하지 못하고 분공조직사업을 한 자신에게 있었다.

(신입강사들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밑거름이 되리라.)

새로운 결심밑에 사색을 거듭하던 당세포위원장의 머리속에 문득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출퇴근시간을 리용하도록 하면 어떻겠는가 하는것이였다. 신입강사들과 같은 지구에서 사는 오랜 강사들에게 분공을 준다면 출퇴근길에서 강의술을 높이는데 필요한 방조를 줄수 있었고 또 자기들의 경험도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줄수 있었던것이다.

윤희옥동무는 즉시 집주소가 적힌 종업원명단을 펼쳐들었다. 그리고 그에 기초하여 분공안을 다시 작성하였다.

그 결과는 좋았다. 오랜 강사들이 자기 일은 일대로 하면서도 신입강사들의 수준을 높여주기 위한 사업을 동시에 밀고나가 얼마후부터는 신입강사들이 참관자들에게 더 실감있는 강의를 할수 있게 되였다.

신입강사들의 성격과 소질에 맞게 그들의 실력제고를 위한 분공조직사업을 짜고든것도 이곳 당세포사업에서 보게 되는 좋은 점이다.

언제인가 윤희옥동무는 강사들의 사무실을 지나다가 예술적기량이 엿보이는 노래소리에 끌려 들어가보았다.

신입강사인 김동무였다.

순간 당세포위원장은 기쁨을 금할수 없었다. 당시 당세포에서는 계급교양주제의 예술소품공연을 준비하여 인민경제 여러 단위들에 나가 교양사업을 진행할것을 계획하고있었다. 그런데 제일 걸린것은 예술에 소질이 있는 강사들이 부족한것이였다. 노래와 화술을 배합하여 계급교양의 실효를 높이자면 그것을 담당할만한 인재가 절실히 필요하였던것이다.

당세포위원장은 곧 예술적기량이 높은 강사에게 김동무를 맡아 방조할데 대한 분공을 주었다. 천성적으로 성악에 소질이 있던 김동무의 기량은 나날이 높아졌다.

이렇게 되여 당세포는 탄광과 발전소를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의 전투장들에 나가 계급교양을 참신하게 진행하여 대중을 계급의 전위투사들로 튼튼히 준비시키는데 한몫 단단히 하게 되였다.

이밖에도 강사들이 교대적으로 다른 강사의 강의에 참가하여 부족점들을 찾고 고쳐나가도록 한 사실, 강의합평회에 출연할 강사를 준비시키고 그의 강의술에서 우결함을 찾도록 한 사실을 비롯하여 계급교양의 실효를 높이는데 중심을 두고 분공조직사업을 짜고든 실례는 수없이 많다.

이 과정에 강사들의 실무적자질은 훨씬 높아졌으며 그들의 강의는 참관자들의 가슴속에 복수의 불길을 활화산처럼 세차게 지펴주었다.

계급교양의 전초병들인 강사들의 자질향상을 위한 분공조직사업을 치밀하게 짜고들어 계급교양의 실효를 비상히 높여나간 이곳 당세포의 사업경험은 본받을만 하다.

본사기자 허 일 무

## 계급투쟁의 맹수들로 키운다

**영광군 전동리 초급청년동맹위원회**에서 반제계급교양을 강화하여 청년들을 투철한 계급의식을 지닌 계급투쟁의 맹수들로 준비시키고있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초급청년동맹위원회에서는 계급교양해설모임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한편 계급교양실참관사업을 의의있게 조직하여 청년들의 가슴마다에 계급적원쑤들에 대한 불타는 증오심과 멸적의 의지를 더욱 굳게 새겨주고있다.

얼마전 초급청년동맹위원회에서는 계급교양실참관을 진행하면서 지난 조국해방전쟁의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시기 미제와 계급적원쑤들이 공화국북반부에서 저지른 야수적만행들을 성토하고 원쑤들에게서 천백배의 피값을 받아낼것을 다짐하는 복수결의모임을 조직하였다. 하늘땅에 사무친 원한을 기어이 풀고야말 청년들의 맹세가 차넘치는 모임장소는 불도가니마냥 끓어번졌다.

초급청년동맹위원회의 계급교양사업이 심화되는 속에 계급투쟁의 맹수들로 자라나고있는 이곳 청년들은 원쑤들이 이 땅우에 몰아오는 핵전쟁의 불구름을 높은 알곡생산성과로 짓부셔버릴 불타는 결의에 넘쳐있다.

로농통신원 채 성 정

조선인민의 철천지원쑤 미제침략자들을 천백배로 복수할 굳은 결의에 넘쳐있다.
—함경북도계급교양관에서— 본사기자 찍음

# 행성을 위협하는 최악의 핵범죄국가

이미 보도된바와 같이 얼마전 미국이 2018년 핵태세검토보고서라는것을 발표하였다. 갈피갈피에 핵패권야심과 핵전쟁도발기도가 짙게 깔려있는 문서장이다.

보고서는 각종 핵살인장비들을 더욱 늘이고 현대화하며 임의의 순간에 다른 나라들에 핵선제공격을 가하기 위한 호전적론리와 침략계획들로 가득차있다.

《미국은 현재 이전보다 더욱 다양하고 새로운 핵위협환경에 직면하고있다.》,《적수들의 공격이 핵공격이든 비핵공격이든 관계없이 핵선제공격을 가하겠다.》,《신형핵무기들을 개발한다.》는 강도적주장들이 보고서에 차넘치고있다. 이로써 미국은 핵으로 다른 나라와 민족들을 억누르고 세계를 지배하려는 기도를 다시금 로골적으로 드러내놓았다.

미국은 력사상 제일 처음으로 핵무기를 만들어내여 지구상에 핵군비경쟁을 몰아오고 핵전쟁의 위협을 산생시킨 장본인이다.

미국은 1945년 7월에 핵시험을 감행하여 세계에서 유일하게 핵무기를 보유한 나라로 되였다. 당시 핵시험성공소식에 접한 트루맨은 《오늘부터 세계는 미국의 발밑에 놓이게 되였다.》고 떠들었다. 제2차 세계대전의 전후처리문제와 관련한 회담이 진행되던 포츠담궁전에서 트루맨이 극도로 기고만장해 날뛰던 그때 벌써 미국의 핵위협공갈의 력사가 시작되였다.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의 패망이 시간문제로 남아있던 1945년 8월 6일과 9일 히로시마와 나가사끼에 원자탄을 투하하여 수십만의 민간인들을 살륙하였다. 미국은 력사상 인류를 반대하여 핵무기를 사용한 유일무이한 핵범죄국가로 악명을 남겼다. 전쟁종결에 아무런 의의도 없는 원자탄사용은 핵무기의 위력을 과시하여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미국의 발밑에 굽신거리게 하려는 지배주의적야망의 발로였다. 핵무기사용을 통해 미국은 세계제패를 위해서라면 인류를 멸살시키는것도 서슴지 않는 범죄적정체를 적라라하게 드러냈다.

미국의 핵보유와 그 사용, 핵위협을 통한 로골적인 패권주의정책은 세계에 핵군비경쟁의 돌풍을 몰아온 근원이다.

미국은 《핵에네르기의 국제관리》라는 미명하에 1946년 6월 유엔안전보장리사회 상임리사국을 포함하는 모든 나라들의 핵개발을 엄격히 통제할것을 발기하고 그해 9월 모든 핵관련정보를 제공하는것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한것을 비롯하여 핵무기의 독점을 지탱하기 위해 갖은 책동을 다하였다.

하지만 1949년 8월 쏘련이 핵시험에서 성공한데 이어 여러 나라들이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자 보다 위력한 핵무기개발에 박차를 가하면서 세계적인 핵군비경쟁을 더욱 격화시켰다. 미국에 뒤질세라 렬강들은 저저마다 핵무기를 개발하고 핵무기고를 늘여나갔으며 핵무기의 성능을 갱신하기 위한 핵시험들을 계속하였다.

세기를 이어오는 미국의 핵정책에 의해 인류는 장장 수십년세월 현실화된 핵전쟁의 위협속에서 살아야 했다.

핵태세검토보고서는 핵우위에 기초하여 세계를 제패하려는 미국의 지배주의적야망을 보여주는 범죄적문서장이다.

2002년에 부쉬행정부는 우리 나라와 로씨야, 중국, 수리아, 리비아, 이란, 이라크를 핵공격대상으로 지정한 핵태세검토보고서를 내놓았다. 내용은 이 나라들이 핵을 보유하지 않아도 그리고 미국이 직접 핵공격을 받지 않아도 핵무기로 선제공격할수 있으며 그를 위해 현대적인 핵무기개발을 다그칠것이라는것이였다. 이를 통해 미국은 핵무기를 공격수단으로 실전에 사용하려는 범죄적기도를 로골적으로 드러내놓았다.

당시 여론들은 《미국이 필사적으로 새로운 핵무기사용목적을 찾으려고 노력하고있다.》,《핵태세검토보고서는 진짜 다이나마이트이다.》,《보고서가 핵무기를 전쟁억제보다는 전쟁수단으로 만들고있는것이 분명하다.》고 비난해나섰다.

부쉬행정부의 뒤를 이은 오바마행정부가 2010년 4월 핵태세검토보고서를 발표하였다.

핵태세검토보고서에서 미국정부는 핵무기고를 축감하고 국가안전전략에서의 핵무기의 중요성을 낮추며 새로운 핵무기를 더이상 개발하지 않고 핵시험을 중지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와 함께 미국은 저들이 보유하고있는 핵탄두수를 공개하고 로씨야와 새로운 전략공격무기축감조약을 체결하는 등 핵정책에서 커다란 변화가 일어난듯이 놀아댔다.

하지만 오바마행정부가 화려하게 장식한 핵태세검토보고서는 핵전쟁광신자로서의 저들의 범죄적정체를 가리우고 다른 핵렬강들의 지위를 약화시켜 핵패권을 차지하려는 교활한 계책의 산물이였다.

어느 한 통신은 미국의 핵태세검토보고서를 평하면서 이렇게 까밝혔다.

《미국은 핵태세검토보고서를 통해 핵무기를 먼저 사용하지 않는다고는 선포하지 않았으며 또한 핵무기고를 줄이겠다고 선포하였지만 이와 함께 핵력량을 계속 유지하고 동맹국들에 〈핵보호우산〉을 계속 제공할것이라고 하였다.》

미국은 보고서에서 핵무기전파방지조약을 준수하는 비핵국가들에 대하여서는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것이지만 우리 나라와 이란은 핵불사용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찍어밝혔다. 이것은 미국이 여전히 핵무기를 세계제패전략실현의 기둥으로 삼고있다는것을 증명해주었다.

미국은 이른바 《핵무기없는 세계건설》을 력설하면서 돌아앉아서는 막대한 자금을 랑진하며 핵무기현대화에 박차를 가하였다. 오바마행정부가 발표한 핵태세검토보고서는 핵으로 세계를 지배하려는 미국의 흉심을 가리울수 없었다.

그로부터 8년만인 올해에 들어와 이번에는 트럼프행정부가 선임정권시기보다 더욱 로골적이고 침략적인 내용으로 일관된 핵태세검토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신형핵무기들을 개발하고 적수들의 공격이 핵공격이든 비핵공격이든 관계없이 핵선제공격을 가하겠다고 발힘으로써 전세계를 향하여 핵선전포고를 하였다.

무모한 핵팽증으로 일관된 보고서는 핵에 의거하여 세계를 제패하려는 미국의 지배주의적야망이 오늘날 최절정에 달했다는것을 말해준다.

미국이야말로 각종 핵살인장비들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세계를 핵전쟁발발에로 몰아가는 최악의 핵범죄국가이다.

미국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한 인류에게 가해지는 핵위협은 계속 증대될것이며 핵우세에 기초한 강권과 전쟁책동은 더욱 우심해질것이다.

우리 나라의 핵보유, 핵무력강화는 미국의 가증되는 핵위협공갈에 대처한 정정당당한 자위적조치이다. 우리의 핵무력강화에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이 있다.

미제가 우리 국가를 향해 핵이발을 사납게 드러낼수록 우리는 자신이 선택한 길이 옳다는것을 더욱 확신하며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의 병진로선관철에 총매진할것이다.

리 철 혁

## 남조선대학생단체
# 민족화합에 재를 뿌리려는 보수세력을 규탄

남조선 《련합뉴스》에 의하면 남조선의 대학생진보련합이 13일 서울에 있는 《자유한국당》사, 《바른미래당》사앞에서 련이어 기자회견들을 가지고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를 계기로 이루어진 북남관계개선분위기를 방해하려는 모든 행위를 중지할것을 보수정당들에 요구하였다.

단체는 민족의 화합을 방해하고 재를 뿌리려는 세력이 있다고 하면서 바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북의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참가로 어느때보다 평화의 분위기가 조성되고있으나 그에 대해 계속 비난하고있다고 규탄하였다.

국민들은 올림픽경기대회이후에도 북과의 대립, 대결이 아닌 대화, 화해를 바라고있다고 단체는 밝혔다. 단체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국민의 이러한 요구를 무시한다면 존재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하였다.

기자회견들이 끝난 다음 단체는 두 반역정당들에 항의문을 들이댔다.

# 또다시 드러난 살인악마의 죄행

남조선 《련합뉴스》에 의하면 박정희역도가 《유신》파쑈독재통치에 항거하여 떨쳐나선 10월민주항쟁(부산, 마산민주항쟁)참가자들을 공수특전대를 내몰아 야수적으로 진압한 사실이 또다시 드러났다.

19일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 및 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가 발표한 부마민주항쟁진상조사결과에 의하면 박정희역도는 1979년 10월 18일 《계엄》사령관에게 공수특전려단무력을 마산에 투입하여 항쟁을 진압하라고 지시하였다.

또한 《계엄》사령부는 합동수사단이라는것을 만들어 항쟁참가자들에 대한 조사놀음을 벌려놓고 그 배후세력을 우리 공화국과 련결시켜보려고 책동하였다.

박정희군사파쑈도당은 허위자료를 만들기 위해 항쟁자들에게 갖은 고문을 다 들이대였으며 《마산사제총기》사건까지 조작하였다.

폭로된바와 같이 1979년 10월 15일 독재《정권》퇴진, 《유신헌법》철폐, 학원의 민주화, 언론의 자유 등을 요구하는 부산대학교 학생들의 《민주선언문》채택과 함께 부산, 마산에서 각계층의 반《정부》투쟁이 급속히 확대되자 박정희군사파쑈악당은 이 지역에 《비상계엄령》과 《위수령》을 각각 공포하고 땅크와 장갑차로 중무장한 특해군무력과 락하산부대를 내몰아 무차별적인 폭압소동을 벌렸다.

군사파쑈악당들은 부산, 마산지역의 대학들에 쳐들어가 최소 1 580여명의 대학생들을 체포구금하였다.

부산시내로 들어가는 일체 렬차, 비행기, 자동차의 운행시간을 중지 또는 단축시켰으며 신문배포마저 금지시켰다.

한편 남조선전역에서 《예방검속》을 벌려놓고 진보적인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을 대대적으로 검거하였다.

군사파쑈악당들은 10월 19일부터 22일까지의 단 며칠동안에만도 서울, 부산, 마산, 대구, 광주지역에서 범죄행위를 저지를 우려가 있다고 하면서 4 200여명을 체포하였다. 그중 3 040여명을 《즉결심판》에 넘기는 폭거를 감행하였다.

이것은 박정희군사파쑈도당이 10월민주항쟁참가자들을 야수적으로 탄압처형한 자료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이번에 밝혀진 박정희군사깡패의 만행자료들은 《유신》악당이야말로 대를 두고 력사의 심판을 받아야 할 역적무리라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 경상북도 포항시에서 지진 발생

남조선에서의 보도들에 의하면 11일 경상북도 포항시에서 리히터척도로 4.6의 지진이 발생하였다.

포항시교외에 진앙을 둔 지진은 서울과 경기도, 부산시, 전라남도, 경상남도를 비롯한 남조선 전지역에서 느낄 정도로 강하였다. 지진으로 여러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건물이 흔들리고 수도관이 터지는 등 피해가 났다 한다.

포항시에서는 지난해 11월에도 리히터척도로 5.5의 강한 지진이 발생하였다.

【조선중앙통신】

# 전쟁광신자와 그 사환군의 치졸한 추태

지금 우리 겨레와 온 세계는 조선반도에 화해의 분위기가 조성되고있는데 대해 환영하면서 그것이 북남관계의 근본적인 개선과 통일에로 이어지기를 바라고있다. 그런데 모처럼 마련된 조선반도의 긴장완화국면을 아니꼬운 시선으로 넘겨다보면서 대결의 랭기를 몰아오려고 발광하는 세력이 있다. 다름아닌 미국과 일본반동들이다.

북남관계개선의 기운이 계속 고조되여가는데 당황망조한 미국과 일본것들은 어떻게 하나 그에 제동을 걸고 긴장을 격화시키려고 리성을 잃고 헤덤비고있다.

미국부대통령 펜스와 일본수상 아베가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참가를 구실로 남조선에 날아들어 우리에 대한 적대감을 드러내며 도처에서 반공화국대결망동을 부린것은 그 대표적실례이다.

이번에 펜스와 아베가 남조선을 행각하며 벌린것은 올림픽의 성공적개최를 위한것이 아니라 북남관계개선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반공화국압살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역겨운 대결광대극이였다.

명색이 부대통령이라고 하는 펜스는 남조선에 기여들자마자 체면도 다 집어던지고 조국을 반역한 인간쓰레기들을 만나 극구 추어주었는가 하면 그것들을 데리고 《천안함기념관》이라는데 찾아가 우리의 존엄높은 제도를 입에 담지 못할 악담으로 비방중상하면서 남조선의 보수패당을 반공화국대결에로 부추겼다.

한편 남조선당국자들을 만난 자리에서는 올림픽분위기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게 그 무슨 《핵포기》니, 《최대한의 압박》이니 하는 광기어린 대결폭언만 잔뜩 늘어놓았다.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기자회견이라는것을 할 때에는 그 누구의 《핵위협》을 운운하며 《군사적선택을 포함한 필요한 모든 행동을 할수 있다.》는 늙다리미치광이 트럼프의 악담을 그대로 외워댔다.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 개막식장에 북과 남의 체육인들이 공동으로 입장할 때 모두가 그에 대해 열렬히 환영하고있는데도 랭담하고 교만한 자세로 앉아버티기를 한 펜스의 수준이하의 태도는 내외의 비난과 경멸을 자아냈다. 그야말로 펜스는 행사장들마다에서 무례하게 놀아대여 사람들의 저주대상으로 되고 망신만 깨깨 당하였다.

일본수상 아베도 마찬가지였다. 아베는 남조선당국과의 회담에서 주제넘게 미국과의 합동군사연습을 《연기할 단계가 아니》라느니, 합동군사연습을 《예정대로 진행하는것이 중요》하다느니 하고 수작질하며 조선반도에 핵전쟁의 검은구름을 몰아오려고 극성을 부리였다.

펜스와 아베가 남조선의 여기저기를 돌아치며 대결소동에 광분한것은 남의 잔치상을 뒤집어엎지 못해 안달이 난 불량배들의 무례무도한 망동이며 평화의 상징인 올림픽마저 반공화국대결장으로 악용하려는 핵전쟁광신자와 그 사환군의 치졸한 추태이다.

펜스와 아베의 처사가 얼마나 혐오스러웠으면 남조선각계가 《잔치집에 와서 곡을 하려는건가.》,《펜스는 당장 이 땅에서 사라지라.》,《아베는 전쟁광》,《남북화해분위기를 전쟁위기에로 되돌리려는 일본의 그 어떤 훼방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분노를 터치며 격렬한 반응을 보였겠는가.

미국과 일본의 망동은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적환경을 마련하려는 우리의 성의와 진지한 노력에 대한 정면도전이다.

우리는 조선반도에 조성된 첨예한 군사적대결과 긴장상태를 해소하고 평화와 통일의 길을 열어나가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일본반동들은 우리의 북남관계개선노력을 허무니없는 악담질로 헐뜯고 올림픽까지 반공화국압살책동에 써먹으면서 반통일광신자, 전쟁미치광이로서의 저들의 추악한 정체를 낱낱이 드러내고있다.

현실은 미국과 일본이야말로 북과 남이 화해하고 단합하는것을 조금도 바라지 않으면서 조선반도의 긴장을 항시적으로 격화시키고 이 땅에 핵전쟁의 재난을 몰아오려고 기승을 부리는 우리 민족의 극악한 원쑤들이라는것을 다시금 명백히 립증해주고있다.

미국과 일본반동들이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우리 민족의 지향과 요구에 역행하면서 반공화국대결소동에 광분하고있지만 그로부터 얻을것은 아무것도 없다. 미국과 일본반동들의 망동은 우리 민족의 대미, 대일적개심만 더욱 폭발시킬뿐이다.

북과 남, 해외의 우리 민족은 내외반통일세력들의 책동이 발악적으로 감행될수록 조국통일에 대한 의지를 굳게 간직하고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려나갈것이다.

본사기자 엄 수 련

# 민심의 배격을 받는 시대의 오물들

《분렬에 기생하고 외세에 기생해 살아가는 인간쓰레기집단》,《민족을 망신시키는 인간오작품들》,《당장 쓸어버려야 할 현대판 을사오적》…

이것은 요즘 입만 짜개지면 북남관계개선을 위해 온갖 성의와 노력을 기울이고있는 우리에 대한 비방중상과 악담질에 열을 올리면서 대결광기를 부리고있는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극우보수떨거지들의 추태를 보며 남조선 각계가 터치는 비난의 목소리이다.

지금 북남관계에서 일어나는 극적인 변화들은 온 민족과 국제사회의 지지와 환영을 받고있다. 내외언론들은 우리의 대범하고 주동적인 노력에 의하여 동결상태에 놓였던 북남관계에 파격적인 전환의 기운이 감돌고있는 현실을 앞을 다투어 대서특필하고있다. 특히 우리 고위급대표단의 남조선방문과 우리 선수단과 응원단, 예술단 등의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파견으로 남조선 각계는 커다란 감동과 흥분에 휩싸여있다.

바로 이러한 때에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남조선의 보수패거리들은 모처럼 마련된 북남관계개선의 분위기에 찬물을 뿌리며 반공화국대결에 미쳐날뛰고있다. 이자들은 우리가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에 참가한데 대해 《제재무력화기도》라고 터무니없이 비방중상하는가 하면 도처에서 《집회》라는것들을 벌리며 히스테리적인 대결란동을 부리고있다.

《자유한국당》 대표 홍준표역도를 비롯한 이 반역당의 패거리들은 련일 당국이 그 누구의 《교란전술》에 넘어가 제재망을 스스로 허물어뜨리고있다고 아부재기를 치고있다. 그러면서 집요하게 《핵폐기》나발을 불어대며 남조선당국에 압력을 가하고있다.

더우기 참을수 없는것은 남조선보수패당이 당국더러 미국은 홀대하고 《북은 과잉대접》했다고 앙탈질을 하다 못해 우리의 최고존엄까지 걸고드는 천추에 용납 못할 도발망동까지 부린것이다. 지금 대결에 미친 남조선보수패당은 《핵개발축하사절단》의 방문이니, 《명백한 리적행위》니 하고 피대를 돋구면서 대화와 북남관계개선의 흐름을 어떻게 하나 가로막으려고 발광하고있다.

한편 《조선일보》,《동아일보》를 비롯한 악질적인 보수언론들은 우리의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참가가 《제재완화와 남조선미국갈등을 유도하기 위한 숨은 의도》에 따른것이라는 고약한 악담질을 계속 해대고있다. 이런 속에 친미사대와 동족대결에 이어있는 시대의 오물, 반통일매국노들의 단말마적발악에 지나지 않는다.

남조선보수패거리들에게는 우리 예술단의 노래소리와 《우리는 하나다.》라는 응원단의 웨침소리, 그에 화답하는 남녘인민들의 함성이 저들의 종말을 선언하는 조종소리로 들리는 모양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민족이 하나가 되여 평화와 통일을 이루려는 동족의 진지한 노력을 이렇듯 악의에 차서 헐뜯을수 있겠는가.

하기는 미국의 사타구니와 분렬의 장벽에 기생해 살아가는 남조선보수패당에게는 날로 고조되는 북남화해와 통일의 기운이 악몽이고 죽음일수밖에 없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남조선보수패거리들은 저들의 더러운 잔명을 부지하기 위해 올림픽이 끝이 난 《대한애국당》의 두목 조원진역도를 비롯한 보수깡패들이 여기저기에서 벌려놓고있는 대결광대극들은 차마 눈뜨고 볼수 없을 정도이다.

수치도 창피도 모르고 동족대결에 피눈이 되여 날뛰는 남조선보수패당의 지랄발광은 세인을 경악케 하고있다. 이자들의 망동은 민족적화해와 단합의 거세찬 흐름에서 밀려나 설자리를 잃고 파멸의 낭떠러지에 몰리우고 파탄되든 조선반도에서 전쟁이 터지든 상관없이 오로지 모처럼 마련된 북남화해의 분위기를 깨버리려고 갖은 발악을 다하고있는것이다.

홍준표와 조원진을 비롯한 보수악당들이 민족적화해와 단합의 흐름을 가로막아보려고 미친개처럼 짖어댈수록 그것은 저들이 인간이기를 그만둔 추악한 버러지들이라는것을 만천하에 그대로 드러내보일뿐이다. 남조선인민들이 보수패당의 무지무도한 광태에 격분을 금치 못하면서 저주와 규탄의 함성을 높이고있는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남조선당국은 한줌도 못되는 보수추물들의 지랄발광때문에 지금의 화해와 대화의 분위기가 깨여지고 동족대결의 악순환이 되풀이되는것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지금 우리 겨레는 남조선보수패당의 망동을 증오에 찬 눈길로 지켜보며 민족의 독버섯이고 통일의 암초인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깡패들을 뿌리채 들어내는 길이 다름아닌 평화와 통일을 앞당기는 길이라는것을 똑똑히 새겨안고있다.

남조선인민들은 민족의 지향과 요구를 거스르면서 반통일적망동에 미쳐날뛰는 천하의 매국역적들인 보수패거리들을 절대로 용서치 않을것이다.

본사기자 라 설 하

## 평화와 안정을 위해 노력할것을 호소

감비아대통령 애더머 배로우가 18일 독립절에 즈음하여 한 연설에서 나라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노력할것을 전국에 호소하였다.

그는 모든 주민들은 정견과 신앙, 재산의 유무와 성별의 차이는 있을수 있어도 감비아사람이라는 하나의 공통점을 가지고있다고 하면서 이것을 명심하는것이 중요하다고 말하였다.

사람들사이에 호상 존중하는 마음이 오가면 나라의 평화적환경은 계속 유지될수 있다고 하면서 그는 모두가 감비아를 가장 훌륭한 나라로 만드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이스라엘의 유태인정착촌확장책동 규탄

팔레스티나수상 라미 함달라흐가 최근 성명을 발표하여 이스라엘의 유태인정착촌확장책동을 중지시킬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성명은 국제기구들 특히 유엔이 유태인정착촌확장책동을 중지하도록 이스라엘에 압박을 가하기 위한 진지한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성명은 또한 이스라엘의 강점과 정착활동으로부터 팔레스티나인들과 이슬람교 및 그리스도교의 성지들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적인 조치를 취할것을 호소하였다.

팔레스티나정부가 13일 성명을 발표하여 이스라엘의 정착촌합법화책동을 준렬히 규탄하였다. 최근 이스라엘이 요르단강서안지역에 건설된 유태인정착촌들을 저들의 합법적인 령토로 만들려고 획책하고있는것과 관련하여 성명은 이것은 이스라엘이 지역의 평화와 분쟁해결에 전혀 관심이 없다는것을 보여준다고 까밝혔다.

성명은 이스라엘이 유태인정착촌들을 강제병합함으로써 모든 협정들을 무효화하려 한다고 단죄하였다.

## 일본의 침략전쟁완비책동

일본이 주변정세긴장을 운운하면서 침략전쟁태세를 완비하려고 책동하고있다.

밝혀진데 의하면 륙상《자위대》는 3월말에 《외딴섬방위》를 담당한 《수륙기동단》을 새로 조직할것을 꾀하고있다.

규모는 2 100명정도이며 2019년도까지 부대에 52대의 수륙량용차가 배비되게 된다.

이와 함께 일본방위성은 해안가에 부설된 지뢰 등을 파괴하는 지뢰원치리장치를 개발하는데 착수하였다. 이 장치는 륙상 《자위대》에 배비된 《AAV-7》수륙량용차에 탑재된다고 한다.

## 미원자력잠수함의 부산스러운 움직임

미원자력잠수함이 조선반도주변해역에 부산스럽게 드나들면서 지역정세를 격화시키고있다.

지난해에만도 미원자력잠수함은 나가사끼현의 사세보항에 26차례나 기여들었으며 그것은 지금까지의 최고를 기록하였다.

미원자력잠수함의 이러한 움직임은 지역나라들의 웅당한 경계심을 자아내고있다.

## 기업체파산사태

도이췰란드에서 채무위기로 많은 기업체들이 무리로 파산되고있다.

15일 이 나라의 한 조사기관이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지난해 전국적으로 2만 270여개의 기업체들이 파산당하였다.

그중 대부분이 규모가 작은 기업체들과 창설된지 10년안팎인 기업체들이라고 한다.

## 인플레률 증대

로므니아에서 1월에 인플레률이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4.3% 증대되였다. 특히 식료품과 에네르기가격이 대폭 높아졌다.

【조선중앙통신】

# 독도강탈을 노린 어리석은 광대놀음

2005년에 일본반동들은 2월 22일을 《다께시마(독도)의 날》로 정해놓았다. 그때부터 해마다 이날을 계기로 《독도령유권》을 요란하게 떠들어대면서 국민들속에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사상을 집중적으로 주입시키군 한다.

올해에도 다를바 없다.

얼마전 일본은 22일에 열리는 《다께시마의 날》행사에 정부관리를 파견한다고 정식 발표하였다.

정부급의 인물을 참가시켜 행사의 《의의》를 더욱 부각시켜보자는 심산이다.

22일에 벌어지게 될 광대극을 앞두고 일본반동들이 지랄을 치고있다.

지난 1월 일본반동들은 도꾜의 한복판에서 독도를 제땅이라고 주장하는 《령토주권전시관》의 개관식이라는것을 뻐젓이 열었다. 자국민들과 국제사회에 독도가 일본의 령토라는것을 공인시키려는 계책의 산물이다.

그들은 이 《전시관》을 군국주의선전거점으로 리용하려 하고있다.

개관식에 참가한 오끼나와 및 북방령토대책담당상이라는자는 독도가 저들의 땅인데 60년이상 불법점거되여있다고 기염을 토하였다.

이뿐이 아니다.

얼마전 내각관방장관 스가는 녀자빙상호케이 북남단일팀이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출전을 위한 훈련경기때에 독도가 그려진 통일기를 사용한것을 걸고들었다. 스가는 《독도의 령유권에 관한 일본의 립장에 비추어볼때 받아들일수 없다.》고 야단을 쳤다.

최근 일본문부과학성은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이어 고등학교에서도 일본의 《독도령유권》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긴 학습지도요령개정안을 꾸며냈다.

이처럼 남의것도 제것이라고 생떼를 쓰는 섬나라족속들의 파렴치한 망동이 극도에 달하고있다.

독도는 력사적, 국제법적으로 철두철미 조선의 령토이다.

독도가 우리 나라의 고유한 령토이라는것은 력사적사실자료들과 법률적근거에 의해 이미 확증될대로 확증되였다.

《삼국사기》,《고려사》,《성종실록》등 우리 나라의 수많은 력사책들은 물론 《조선연안수로집》,《단국선지》,《시마네현지》등 일본측 사료들에도 엄연하게 독도가 조선의 령토로 되여있다.

제2차 세계대전후 일본은 패망과 함께 독도가 저들의 섬이 아니라는것을 국제사회앞에 공식적으로 인정하였다. 당시 미국과 영국이 작성한 지도들에도 독도는 조선의 령토로 명백히 표기되여있다.

독도가 우리 나라의 신성한 령토의 한부분이라는 사실자료들은 지금도 계속 발굴되고있다.

2016년에 일본의 옛 지도들이 공개되였다.

이것들은 1888년과 1892년에 당시 일본농상무성의 지질조사소가 간행한 일본제국전도와 일본교과서에 실린 중등교육용지도이다.

일본제국전도에는 독도보다 작은 섬에까지 산표시가 되여있지만 울릉도와 독도에는 산표시가 하나도 없다. 울릉도와 독도가 우리 령토였기때문에 애당초 측량대상에서 제외되였던것이다.

일본의 대표적인 지질학자이며 지리교과서 저자였던 야마가미가 집필한 교과서에 실린 아시아지도에는 독도가 일본국경선밖에 놓여있다. 이것 역시 당시 문부성의 검정교과서로서 일본이 독도를 자국령토로 인정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물이다.

이러한 사실자료들은 독도가 우리 나라의 고유한 령토임을 증명하는 수많은 자료들에 비해볼 때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최근 로씨야의 아시아지리전문가가 독도는 조선의 령토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동해의 울릉도와 독도》라는 저서를 내고 1943년과 1951년사이에 쏘련과 미국, 영국 등이 맺은 조약과 협정 등을 보면 독도는 조선의 불가분리적인 한부분이라고 밝혔다. 《일본해》는 조선동해로 표기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독도가 조선의 령토라는데 대해서는 단 한가닥의 의문도, 반론도 있을수 없다.

일본이 독도를 저들의 땅이라고 하는것은 천만부당한 령토강탈행위이다.

독도와 그 주변에는 여러가지 귀금속들과 함께 풍부한 에네르기자원이 매장되여있으며 수산자원도 가득하다. 또한 지정학적위치로 볼 때 매우 중요한 군사적요충지로 된다.

해외팽창과 령토강탈에 환장이 된 일본반동들은 이처럼 중요한 독도에 군침을 흘리며 그것을 강탈하려고 획책하고있다.

일본반동들은 패망후 지금까지 독도에 일장기를 꽂는 그 시각을 일일천추로 바라면서 갖은 발악을 다하고있다.

독도가 일본령토라고 공식 선포한 정부의 외교청서가 발표되고 집권자들의 입에서 독도가 력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나 저들의것이라는 황당한 주장들이 끊임없이 쏟아져나오고있다.

수많은 일본인들의 호적을 독도로 옮겨놓고 《독도광구세》라는것까지 거두어들이는 추태가 벌어지고 《독도령유권》을 목터지게 부르짖고있다. 독도가 일본의것이라는 선전문구들이 새 세대들의 교과서에 어지럽게 오르고있다.

이 모든 무분별한 망동은 일본반동들의 골수에 사무친 재침야망, 령토팽창야심의 집중적발로이다. 남의 령토를 고기점 베여먹듯 빼앗아보겠다고 발광하는 일본반동들의 추태가 가소롭기 그지없다.

독도는 그 누가 감히 부정할수도 없고 빼앗을수도 없는 조선의 령토이다.

일본반동들이 그 어떤 광대놀음을 다 벌려놓아도 독도를 절대로 강탈하지 못한다.

본사기자

ㄱ-810295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발송특별 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론설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528, 당생활부 370-45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 집 위 원 회